

北傀의 統革黨再建戰術分析 및  
逆利用方案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1974年度 国土統一院 學術用役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4 . 11 .

研究責任者 김 성 철



## 目 次

1. 序 言	1
2. 人民革命理論의 内容과 實際	2
3. 北韓의 對南人民革命戰略	13
4. 統一革命黨	19
○ 概 況	19
○ 沿 革	20
○ 活 動	21
5. 結論 ( 對策方向 )	45
※ 附 錄	
① 統一革命黨宣言	47
② 統一革命黨綱領	55



## 1. 序 言

北韓의 南韓赤化의 基本戰略 或은 要件은 原來 1965年 4月 金日成이 「인도네시아」의 社会科学院에서 行한 演說과 1968年 9月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스무돌 기념 경축대회」에서 報告에서 다시 부여된 바 있는 3大革命力량의 強化, 即 革命基地로서의 北韓 自体의 力量強化, 남조선 인민의 혁명力량의 強化 그리고 조선인민과 국제혁명세력과의 단결 強化이다. 本稿가 다루려는 人民革命戰略의 對南 適用可能性 診斷은 바로 3大 革命 力量中 우번체인 「남조선 인민의 혁명력량의 강화」에 該當되는 바, 金日成의 3大革命力량의 有機的 連結論이 暗示하고 있는 것 처럼 北韓의 對南戰略은 北韓自体의 對南問題 그리고 國際情勢와 密接한 關係를 맺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對南人民革命戰略의 实效性을 檢討하기 爲해서는 安으로의 北緯内部의 狀況變化의 問題, 國際情勢의 推移에 對한 判斷도 並行되어야 하겠지만 本稿에 있어서는 北韓自体의 狀況과 國際情勢가 別奏動이 없다는 假定-이 ertain 假定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別途의 問題임-을 大前提로 討論을 推進시킬 것임을 밝혀둔다.

本 研究의 方法은 앞에서 資料問題와 關聯하여 이미 言及한 것 처럼 物量的 分析 接近方法이라고 보다는 주로 歷史的, 制度的, 社會, 經濟的 分析方法的 混合이 될 것이다.

## 2. 人民革命理論의 內容과 實際

西歐式 自由民主主義가 나라마다 그 成立背景과 環境의 差異로 말미암아 具體的인 內容과 形式에 있어서 固定된 定型이 있는 것이 아니라 差異가 있는 것 처럼 各國의 共產主義體制도 「프로테스탄트」의 內容에 있어서 各樣各色이라 할 수 있다.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其의 無定期하다고까지 할 수 있다. 原來 「맑스」와 「엔겔스」에 依하면 共產主義革命은 資本主義가 高度로 發展된 産業社會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革命當時의 「로시야」는 後進國이므로 此의 發生한 것이다. 1) 古典的 共產主義理論의 또 하나의 特點은 農民階級을 保守階級으로 規定하고 共產主義革命에 있어서 勞動者階級의 同盟者가 될 수 없음을 勿論 더 나아가서는 共產革命에 障礙가 되는 反動勢力으로 본 點이다. 2) 農民에게는 分明的 保守的인 要素가 濃厚하다. 그러나 農民階級은 반드시 共產主義革命과 對立되는 勢力만은 아니며 狀況에 따라서는 오히려 共產革命을 積極的으로 推進하는 役割을 하고 있는 것이 「로시야」 革命以後 後進國의 있어서의 共產主義運動이 立証하고 있다. 此의 環境만 하더라도 革命의 主導勢力은 都市의 勞動者였지만 農民階級의 呼應과 參與로 共產革命은 成功할 수 있었던 것이다.

第2次 世界大戰의 終戰을 前後로 東歐羅巴와 西細亞를 中心으로 出現한 「人民民主主義」는 「맑스」의 古典的理論에서 말하는 共產



主義革命을 위한 前提條件이 欠如해 있는 地域에서 共產革命을 遂行하기 爲한 理論的 뒷받침을 爲한 궁여지책의 産物이라고도 할 수 있다. 卽 共產革命을 主導할 勞動者의 勢力이 極度로 微弱한 狀態에서 如何히 共產革命을 이룩할 수 있는가 하는 問題와 關聯된 것이다. 바로 앞에서도 指摘했다시피 古典的 共產主義理論 (orthodox marxism) 에 적용하는 共產革命은 지금까지 存在하지 않아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지가 않다.

古典的 共產主義理論의 勁直性에 隨伴된 現實과의 齟齬를 해소시키고져 出現한 것이 바로 「레닌」이다. 卽 「맑스」와 「엔겔스」가 共產主義理論의 全體的인 틀 (frame) 을 만들었다 한다면 「레닌」은 그 틀의 到處에 난 구멍을 代워부치는 補修作業을 맡은 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問題는 補修作業의 結果, 全體的인 모습이 本來의 그것과는 全然 異質的인 것이 되고 말았다는 事實이다. 實證로 現存하는 共產主義體制들은 과연 「프로레타리아트」 獨裁體制인지 아니면 「프로레타리아트」 獨裁를 가장 한 君主制 或은 寡頭制인지를 알 수 없을 경우가 많다. 各國의 共產政權은 「맑스-레닌이즘」을 표방함으로써 얼핏보기에는 「맑스」的 要素와 「레닌」的 要素가 均等히 配속된 것 같지마는 實際는 그렇지 못하다. 대체로 「맑스」的 要素는 至極히 名目上에 不過하고 「레닌」的 要素만이 強調되는 實情이다.

「맑시즘」과 「레닌이즘」의 基本的 差異는 共產主義者들은 猛烈히 否認하고 나서겠지만 지금까지 各國 共產主義運動을 綜合하여 볼 때 大略 다음과 같이 指摘할 수 있다.

첫째, 革命 및 그 要件에 대한 觀點에 있어서는 「맑스」는 歷史的 必然性에 依한 自然發生的 現象이라 본 反面에 「레닌」은 革命에 있어서는 人爲的 要素를 強調하였다. 여기서 「人爲的」要素라 함은 革命이 所謂 「歷史的 必然性」에 依하여 스스로 發生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成熟되지 않은 要件을 선동 자극 조작 등에 의하여 誘導해서 革命을 促進시키는 積極的인 態度를 말한다.

둘째, 「맑스」의 思想의 要諦는 經濟決定論인데 反하여 「레닌」의 그것은 政治決定論이다. 이와같은 差異點은 첫째번의 差異點에서 나오는 結果라고 말 할 수 있다. 卽 「맑스」에 의하던 革命의 決定的인 要件은 環境 經濟的環境인데 대하여 「레닌」의 경우에는 環境 (다시 말해서 養成된 새로운 生産力과 이를 포용할 수 있는 生産關係 卽 既成의 制度와의 심각한 對立)도 重要하지만 革命이 成功되기 위해서는 혁명을 이끌어가는 指導力 다시 말해서 革命의 前衛로서의 「黨」의 役割을 強調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黨의 指導力 如何에 따라서 革命을 앞당길 수도 있고 成熟된 革命의 霧開氣를 오히려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革命은 客觀的 條件만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맑스」와 「레닌」은 人間의 本性에 대한 見解에 있어서는 差異가 있다. 얼핏보기에는 兩者 다 人間의 本性은 原來 善하기도 惡하기도 없는 中性으로서 다만 좋은 制度 밑에서는 善良하고 나쁜 制度 밑에서는 惡해 진다는 것을 主張하는 것 같지만 좀더 세밀히 觀察하면 「맑스」와 人間의 本性에 대한 見解는 性善

說 前에 「레닌」은 性惡說前에 치우친 것을 알 수 있다. 卽 「맑스」의 思想은 人間은 根本的으로 서로가 믿고 協調하는 自律的 能力을 갖었으며 人間의 歷史는 바로 이와같은 能力을 實現하는 方向으로 간다는 樂觀論에 根據를 두고 있다. 「앞으로 必然的으로 到來할 共產主義社會에서는 人間은 남을 착취하려고도 않고 서로가 協同하며 完全 平等한 立場에서 能力에 따라 일하며 必要에 따라 消費하게 될 것이라는 主張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레닌」은 人間의 自律性 自治性에 대하여 悲觀的 見解를 多分히 나타내고 있다. 그는 「맑스」가 말하는 共產主義的 理想郷의 到來를 깨놓고 否定하지는 않았으나 組織, 規律, 黨에 의한 大衆의 指揮, 선동과 操作, 社會主義的 競爭等을 強調함으로써 人間의 自律性 自治性에 회의를 나타낸 것이다. 「權力을 追求하는 動物로서의 人間」은 그의 人間本性에 대한 基本的 概念을 이루며 따라서 그가 社會를 보는 視點은 「토마스·홉브스」의 「萬人對 萬人의 鬭爭觀係」와 매우 類似하다. 人間社會의 要諦를 이루는 對立과 鬭爭이 어떻게 共產主義社會에서는 解消되는지를 그는 分明히 하지 않았다. 아니 分明히 할 수도 없거니와 分明히 하기를 願치 않을 것이다. 「맑스」와 「레닌」은 둘다 「客觀的眞理」나 「科學性」을 強調하였지만 「맑스」에 있어서는 「觀念的 理想」의 要素가 濃厚하였으며 반면 「레닌」에 있어서는 「마키아벨리」의인 現實主義的 色彩가 濃厚하다고도 말 할수 있을 것이다. 「레닌」을 理念家(ideologue)라기 보다는 戰術家(tactician)로 規定하는 理由가 바로 여기에 있다. 「레닌」의 戰略과 戰術의 核心은

目的을 爲해서는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말라는 것이다.

勝利만 하면 그동안에 使用된 모든 手段과 方法은 正当化된다는 理論이다.

바로 이 點에 우리는 特別히 留意를 해야하며 現存하는 共產體制들은 모두 이 原則을 基本的인 行動강령으로 삼고 있다는 點에 더욱 그러하다. 目的을 爲해서는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말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敵이 弱할 때는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敵이 強할 때는 妥協을 하되 그 妥協은 언젠가는 逆襲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시 말해서 背信과 기만을 前提로 해야 된다는 것이다. 背信과 기만을 前提로 하지 않는 妥協이란 글북을 의미하고 背信과 기만을 할 수 있으나 없느냐에 따라 眞正한 共產主義者가 되느냐 修正主義者가 되느냐로 區別한 수 있다고 「레닌」 主義的 共產主義者들은 믿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가 檢討하고자 하는 人民民主主義理論도 바로 위에서 말한 내용을 基幹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안된다. 卽 人民民主主義革命理論은 「프롤레타리아트 獨裁」라는 共產主義理論을 修正한 데서 나온 「새로운 理論을 爲한 理論」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 獨裁로 가기 위한 하나의 戰略을 爲한 理論」이라는 點이다.

筆者가 이처럼 人民革命論을 「이념이론」이 아니라 「戰略理論」이라고 分明히 하는 이유는 人民革命理論을 往往 「理念理論」인 것으로 混同하는데서 오는 蹉跌, 다시 말해서 目的과 手段을 分明히 區別하는 現存 共產體制의 本質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차질을 指摘하고자 하는데 있다.

人民革命理論은 한마디로 말해서 弱少後進國에서의 共產主義革命을 達成하기 爲한 戰略理論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共產革命理論은 大體로 세가지로 綜合할 수 있다.

### 1) 一段階革命理論

이것은 先進産業國家에 適用될 戰略理論이다. 卽 先進産業國家에는 튼튼한 工場勞動者階級이 存在하므로 곧장 「프롤레타리아트」 革命이 可能하다는 理論이다. 다시 말해서 「맑스」의 古典的 狀況과 合致되는 理論임. 그러나 아직까지 一段階革命이 實現된 例는 없다.

### 2) 二段階革命理論

後進國에 適用되는 理論인데 다만 最近에 帝國主義의 植民地가 되었던 經驗이 없는 경우를 가르킨다. 第1段階는 「부르조와」 民主革命의 段階이며 第2段階는 「프롤레타리아트」 獨裁革命의 段階이다. 卽 後進國에 있어서는 勞動者階級の 弱體性은 勿論이려니와 勞動者階級 形成 以前에 先行되어야 할 「부르조와」 階級 亦 是 微弱하므로 우선 反封建 「부르조와」 民主革命부터 이룩해 놓고 그 다음에 成長하는 勞動者階級을 규합, 「프롤레타리아트」 革命을 遂行해야 된다는 理論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二段階革命理論은 그 運할에 있어서 狀況判斷에 必要한 明確한 基準이 없어서 問題點이 있으며 實際로 一段階革命理論과 마찬가지로 實効를 본 例가 없다.

1920年代 後半의 日本에서 左翼들간에 日本의 狀況을 一段階革命

과 連結시킬 것이냐 아니면 2 段階革命과 結付시킬 것이냐는 「로농파(勞農派)」와 「고자하」간의 熱면 論爭<sup>3)</sup>은 그 좋은 例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3) 3 段階革命理論

이것은 帝國主義에 屈服되었던 아니면 帝國主義의 屈服하에서 完全히 이탈되자 못한 弱少後進國에 該當되는 理論이다. 第1 段階는 階級을 超越한 統一前線, 聯合前線, 民族前線을 形成하여 (必要하면 「부르조아」階級の 領導마저 認定함) 主로 反帝國爭을 展開하여 獨立을 爭取하는 段階이며 第二段階는 統一前線 (United front) 民族前線 (National front) 을 「프롤레타리아트」階級の 領導下的의 人民前線 (People's front) 으로 代置하는 段階이며 第3 段階는 完全히 「프롤레타리아트」 獨裁로 轉換하는 段階이다. 因해서 人民革命理論은 3 段階革命의 第2 段階에 該當하는 理論이다.

그러면 「人民」이란 누구를 指稱하는가? 地主階級, 大資本家, 買辦資本家, 官僚階級을 除外한 全階級 即 勞動者, 農民, 小「부르조아지」, 知識人, 學生, 民族資本家を 말한다.<sup>4)</sup> 結局 人民革命의 段階는 革命推進勢力的 構成으로 볼 때 反帝 反封建革命을 完遂하고 黨의 領導에 의한 「프롤레타리아트」階級이 革命勢力으로서의 位置를 確立하는 段階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主張은 오직 理論上에 不過하고 實際面에서 볼 때 이와같은 理論이 얼만큼 實効를 거두워 왔는지는 至極히 疑問스럽다. 무엇보다도 「프롤레타리아트階級の 人民前線에 있어서의 領導」라는 點이 더욱 그러하다. 實例로 人民

民主主義路線의 典型이라고 할 수 있는 東歐羅巴 여러나라의 人民民主主義政權들이 如何히 樹立되었는가를 보기로 하자.

第2次大戰 直後 人民民主主義를 표방하고 나선 東歐羅巴의 共產國家들 -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체코슬라비아」, 「폴란드」-은 전부 「나치」獨逸에 依하여 占領되었다가 終戰과 더불어 解放되었다는 共通點은 있으나 共產政權 樹立 過程面에서 볼 때에는 大略 세가지 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 5)

1.) 「게릴라」戰에 의한 共產政權樹立

「나치」의 占領期間 組織된 土着 「게릴라」들이 終戰後 內亂을 通하여 共產政權을 樹立한 경우인데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가 그 例이다. 兩者의 共通點은 極度の 貧困과 經濟的 落後 外部로부터의 孤立(地形上), 그리고 複雜한 人種問題를 가지고 있다는 點이다. 「게릴라」戰을 可能케 했던 要因들은 高地 帶라는 地形과 人種(或은 氏族)의 融合이었으며 貧富의 線 (economic cleavage)이 人種의 線 (ethnic cleavage)과 反「나치」, 親「나치」의 民族主義的 感情과 접촉에서 共產勢力이 得勢를 할 수 있었는데, 특히 이러한 要素는 「유고슬라비아」에서 強하였다.

한가지 特記할 點은 經濟적으로 落後된 다른 後進國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共產「게릴라」의 主力을 이루었던 것은 勞動者가 아니라 農民들이었다는 것이다.

## 2) 準議會의 節次를 통한 共產政權樹立

이 경우는 共産黨이 比較的 오랫동안 存統해 왔고 상당한 支持를 國民들로 부터 받아오다가 「나치」占領期間 活動을 中止. 그리고 終戰後에 議會制의 復活과 더불어 다시 活動을 하게 된 「체코슬라바키아」와 「헝가리」가 이에 該當한다. 兩者가 오랫동안 西歐議會制度의 影響을 받았고 經濟形便과 國民들의 生活水準도 다른 東歐의 나라들과 比較해서 부유한 便이다. 地形이 「게릴라」戰에 不利한 點도 있겠지만 輻軸國의 占領期間에 別로 地下運動이 없었고 戰後에도 左右間에 內亂이 없었다. 다만 「나치」의 敗亡으로 極右勢力(政黨)이 沒落되고 朝鮮의 影響力 때문에 共産黨에 대한 國民의 支持가 急上昇하자 暴力의 使用없이 人民前線의 形態로 體制의 平和的 轉換을 이룩한 것이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는 人民前線의 中心勢力을 이루었던 것은 「체코」共産黨, 「슬로박」共産黨, 社会民主党, 民族社会黨이었으며 이들은 基督教人民黨과 「슬로박」民主黨을 前線內에 포용하였다. 「유고슬라비아」나 「알바니아」와 또한 对照가 되는 點은 人民前線形成에 있어서 農民의 役割이 微微하다는 點이다.<sup>6)</sup> 또 한가지 興味있는 點은 共產體制의 樹立過程이 比較的 平穩했던 것 처럼 「헝가리아」와 「체코」는 東歐國家中 自由化의 물결이 가장 빨리 온 나라라는 點이다. 비록 朝鮮의 武力的 개입때문에 自由化運動이 좌절되기는 하였지만 自由化運動의 背後에는 過去의 西歐的 議會制度의 經驗이 重要한 作用을 한 것으로 믿어진다.



### 3) 소련軍의 진주에 의한 共產政權樹立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東獨이 이 경우에 該當하며 어떤 意味에서는 「헝가리」나 「체코」는 勿論이고 「유고슬라비아」나 「알바니아」의 人民政權樹立도 소련의 武力에서 오는 影響力의 結果로 볼 수 있다. 소련軍이 進駐하기 前까지 「폴란드」, 「루마니아」, 東獨에서의 共產黨勢力은 極히 微微하였으며 一部 知識人들을 中心으로 構成되었을 뿐 大衆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特히 「폴란드」의 경우는 「나치」占領期間中 諸般地形的 惡條件에도 不拘하고 強力한 地下運動을 벌였던 「레지스탕스」勢力은 圧倒的으로 反共產主義 反「러시안」的이었는데 소련軍의 進駐와 더불어 反共勢力은 完全히 압도되고 共產政權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 점은 소련軍의 進駐가 共產政權樹立에 絶對的 役割을 한 北韓의 경우와 一致하는 것이다.

以上으로 東歐의 경우를 考察하였거니와 그러면 다른 地域에 있어서 人民革命의 內容은 어떠한가? 紙面關係上 亞細亞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諸國들의 狀況을 일일이 記述하기는 어렵고 必要에 따라 뒤에 具體的인 例를 들어 言及하였지만 一般的으로 말해서 그 理論에 있어서는 毛沢東의 新民主主義論이 보여주듯이 「人民」의 定義나 民族統一戰線 形成 및 鬭爭方法等 東歐의 人民革命理論과 別差가 없다. 다만 實際面에서 볼 때 거의 大部分의 경우가 東歐의 첫번째 類型, 即 「유고슬라비아」나 「알바니아」처럼 武裝鬭爭의 形態를 나타내고 있으며 經濟形便으로 볼 때 東歐보다 工業化가 훨씬 뒤져 있으므로 農民이 봉기세력의 주축을

이 루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以上の 것을 綜合하면 「프롤레타리아트」階級을 中心으로 各階級  
間의 聯合戰線을 形成하여 「프롤레타리아트」革命으로 指向한다는  
人民革命理論은 그 實際面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階級에 의하여  
主導되는 경우가 드물고 革命推進의 樣式도 各國形便에 따라 多樣  
함을 알 수 있다. 卽 議會制가 運營되는 狀況에 있어서는 議會  
鬭爭으로 外部로부터의 介入이 可能的 地域에서는 外部의 壓力으로  
強力한 反革命勢力이 存在하는 경우에는 武裝鬭爭으로 或은 이 세  
가지를 모두 並用하는 方法으로 既存體制의 전복을 企圖하는 것이  
다. 그러면 1970년에 對南基本戰略으로 公式적으로 採択된 北韓  
의 人民革命戰略의 內容은 어떠한가를 檢討하기로 하자.

### 3. 北韓의 對南人民革命戰略

1960年 12月 「모스크바」에서 열린 81個国 共産党大会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後進国の 共産主義運動과 關聯된 現段階의 狀況을 民族民主主義革命이라고 結論지은 것에 뒤이어 1961年 9月 北韓의 勞動党은 그의 第4次党大会에서 南韓革命의 性格을 「民族解放民主主義革命」이라고 規定하였다.

그리고 1970年 11月の 勞動党 第5次 党大会에서는 北韓은 다시 南韓革命의 性格을 「人民民主主義革命」으로 規定지었던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檢討하고자 하는 것은 北韓의 소위 「民族解放民主主義革命」과 「人民民主主義革命」의 差異點은 무엇이며 差異가 있다면 무엇이 北韓으로 하여금 이와같은 方向振換(?)을 하도록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路線의 差異點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北韓이 發表한 主要 聲明書들의 文脈을 檢討해서 兩者間의 差異點을 알아내는 것이 한 方法이고 또 하나의 方法은 北韓의 實際行動을 分析해 보는 것이다.

그러면 우선 文脈上의 差異부터 보기로 하자.

#### 1) 民族解放民主主義革命 推進期 (1961年 9月 - 1970年 11月)

##### 中 主要聲明內容

가. 反美帝國主義運動, 美帝國主義者들을 南朝鮮으로 부터 驅逐하는 鬭爭

「反美救國 統一戰線」 및 「革命的 黨」이 南朝鮮에서 組織  
되어야 할 必要性

나. 北朝鮮 全人民의 武裝化와 全國土의 要塞化

다. 北半部의 革命基地의 強化

라. 越北者들에 對한 敎養育成後 南朝鮮革命을 爲하여 再派遣

마. 南朝鮮革命力량의 成長에 의한 革命的 大事變을 맞이할 準備  
의 必要性

바. 南朝鮮에 있어서의 「지릴라」戰術의 導入 必要性

사. 地主, 매관자본가 반동환로배를 타도하고 各계각층을 망라한  
人民政權의 수립 (1966)

아. 南朝鮮 革命完遂에 의한 祖國統一

가. 暴力的 方法에 의한 南朝鮮政權의 진복

차. 南朝鮮에서의 「決定的時期」를 爲한 北朝鮮으로부터의 지원 7)

## 2) 人民民主主義革命 推進期 (1970年 11月 - 現在) 中 主要聲明 內容

가. 反美帝國主義運動, 反「파쇼」 및 民主化鬭爭, 反封建鬭爭

나. 民族解放革命

다. 地主, 매관資本家, 반동환로배 打倒를 爲한 勞動者階級, 農民  
階級, 進步的인 青年, 學生, 一部愛國的軍人, 民族資本家, 小  
「부르조와」階級間의 동맹에 의한 人民政權樹立

라. 地下黨의 組織強化로 革命力량의 強化

마. 暴力革命에 의한 南조선정권의 打倒

바. 政治鬭爭과 經濟鬭爭, 合法 및 半合法, 非合法鬭爭, 暴力鬭爭  
과 非暴力鬭爭 등 모든 鬭爭을 動員하여 革命을 完遂

사. 南조선革命의 支援<sup>8)</sup>

以上 北韓의 對南戰略으로서의 民族解放民主主義革命과 人民革命의  
主要「슬로간」으로 볼 때 兩者間에는 아무런 差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兩者 다 南韓에서 「美帝國主義者를 몰아내고 封建 反  
動勢力인」 大韓民國政府를 「모든 方法을 總動員하여 打倒」하고  
赤化統一을 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解放後 朝鮮軍의 北韓에의 진주  
로 金日成政權이 들어선 이래 계속 되어 온 구호를 民族民主革命  
이니 人民革命이니 하는 말로 수식한데 지나지 않는다.

實際行動面에서 볼 때에도 南韓의 赤化統一이라는 原則에는 變함  
이 없다. 休戰以來 繼續되어 온 間諜의 南派라던지 停戰協定 違  
反이라든지 其他 大韓民國政府에 대한 적대행위는 시기에 따라 程  
度の 差異는 있을 지언정 赤化統一이라는 그들의 原則을 反映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北韓의 對南 基本原則은 그동안 수 많  
은 그들의 平和攻勢가 얼마나 허위인가를 證明해 준다. 平和統一  
이란 그들의 구호는 現時點에서 赤化統一을 爲한 心理的 效果를 考  
慮한 하나의 戰略에 不過한 것이거 그 自体가 原則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이 可能하다는 結論만 내려지  
면 아무 때나 平和統一은 武力統一으로 바뀔 것이다.

赤化統一이 이루어질 수 있는 方法은 1) 武力으로 南韓을 征服  
하는 方法 2) 南韓自体内에서 共產主義勢力이 成長, 蜂起에 의한



의 可能性이 激減된 데에서 온 것 같다. 다시 말해서 눈에 띄  
이리만큼 上昇한 南韓의 国力은 武力에 의한 南韓赤化 可能性을  
저하시킨 반면 남북총선거를 통한 共産黨의 정권장악이라는 것은  
원래 남북총선거라는 것 자체가 國際政治의 推移와 밀접한 關係를  
갖인만큼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있을 可能性이 희박한데다가 大韓  
民國의 경제적 成長은 大韓民國의 국제적 位置를 上昇시킨 결과를  
가져 왔으므로 結局 北韓으로서는 南韓內部的 混亂을 助長하는 方  
法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狀況에서 北  
韓은 對南戰略의 名稱을 「民族民主革命」에서 좀더 과격한 「人民  
革命」으로 바꾸고 실제 行動에 있어서도 60年代末부터 「프에블  
로」사건, EC 121事件, 1.21事變, 東海岸武裝闖諜上陸事件을 위시하  
여 최근의 西海 漁船劫掠남북분쟁, 東海岸경비정사건 등 好戰的인  
態度를 나타내기 始作한 것이다.

北韓이 이처럼 好戰的인 態度를 取하는 底意는 여러가지로 풀이  
될 수 있다.

첫째, 對內的으로는 緊張을 造成함으로써 金日成의 그동안의 政策  
上 잘못에 대한 批判을 막으며 오히려 北韓의 人民들을 勞弊에  
좀더 強力히 動員할 수 있으며,

둘째는, 經濟發展은 社會가 安定된 데에서 이루어지는데 緊張과 不  
安을 造成함으로써 南韓의 經濟活動 및 南韓에 대한 外部로부터의  
投資를 저해, 그동안에 급작히 팽창된 경제를 침체시킴으로써 이에  
따른 社會問題를 階級間的 對立으로 발전시키고,

...  
 ...  
 ...  
 ...  
 ...

될 것이므로, 우선 동원단에 관하여 검토해 봄이 바람직하다.  
 과 응용성에도 분석해봄으로써 우리는 이에 대처하는 對策도 강구  
 재건준비와 그 실행을 정화의 파악하는 물론 최근의 동원단 조직활동  
 의 양상, 그들은 동원단을 목표로, 조직을 활용하고 있는바, 동원단의  
 이에 앞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파가 한국의 인민민주주의 혁명수행  
 는 것이 될 것이다.  
 한 變遷가 共產革命을 막는 變調을 할 것인가는 問題들을 檢討하  
 變遷가 어떠한 形態로 發展하여 될 것이며 可能하지 않다면 어떤  
 것은 果然 南韓에서 共產主義革命이 可能하다, 可能하다면 어떠한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對南 人民革命戰略의 实效性을 診斷한다는  
 구해는 南韓 自體內에서의 共產黨起를 다시 強調한 것이다. 不過한  
 人民革命戰略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北韓의 해방이후 계속해서 주  
 以上으로 볼 때 1970年 노동당 제5차대회에서 採択한 北韓의  
 있을 것이다.

세계는 남한 국민들의 反共態와 能力을 시험해 보는 의도도



## 4 . 통일혁명당

### ○ 概 況

가. 北傀는 그들의 對南基本戰略의 一環으로 南韓에서 人民民主主義革命을 遂行키 爲해 地下革命組織으로서 所謂 統一革命黨을 1964. 3 頃 創建하였다.

나. 統革黨은 創建以後 合法, 非合法 等 온갖 地下活動을 敢行하던 中 荏子島事件을 契機로 1968. 7 所謂 「統一革命黨事件」으로 破壞되었다.

다. 그後 1969. 8 北傀는 「南朝鮮解放民主民族聯盟放送局」(地下放送式)을 通해 人民民主主義革命遂行을 政綱政策으로 한 黨宣言 및 綱領을 採択, 黨再建을 發表하였다.

라. 또한 地下組織의 專用宣傳機構로서 「統一革命黨목소리放送局」(70.6 開局)과 機關紙 「革命戰線」(65.3 創刊) 등을 地下活動의 一環으로 北傀에서 運營하고 있다.

마. 特히 統革黨목소리放送은 開局 以後 每日 2 時間放送에서 現在에는 英語放送까지 新設, 總 8 時間 30 分間 放送하고 있으며, 最近에는 周波數를 1 個 더 增設, 總 3 個 周波數로 放送을 強化하기에 까지 이르렀다.

## ○ 沿 革

### 가. 統一革命黨 創黨

1964. 3. 15. 金日成의 「南朝鮮革命은 南朝鮮人民의 힘으로」라는 敎示에 依拠 1964. 3 頃 對南間諜 金松武로 하여금 金鍾泰를 包摂 統革黨 創黨

### 나. 統一革命黨의 地下活動

1964 ~ 1968 7 사이에 金鍾泰가 4 次에 걸쳐 荏子島를 拠点으로 北德를 往來하며, 地下黨組織에 對한 指令과 密封敎育을 받고 서울에 潛行, 月刊 雜誌「靑脈社」를 創設코 靑年學生, 知識人 等を 包摂 地下活動中 被檢.

### 다. 統一革命黨 再建

荏子島事件으로 統革黨 主謀者 金鍾泰가 處刑된後 北德는 「南朝鮮解放民主民族 聯盟放送局」( 地下放送式 ) 을 通稱 1969. 3. 統一革命黨 構成本 政綱政策 黨規約의 制定, 採択 等 黨再建을 遂行( 人民民主主義 革命遂行을 政綱政策으로 提示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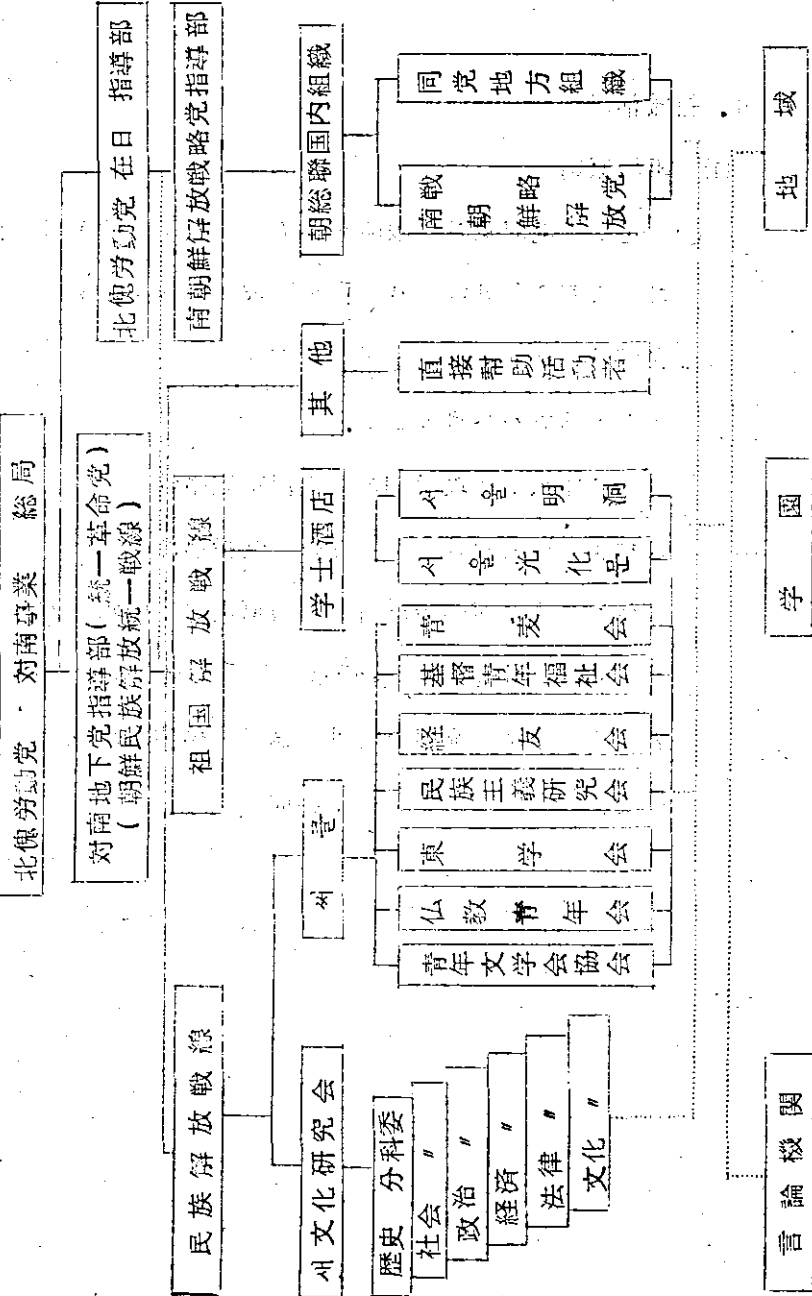
## ○ 活 動

### 가. 組織活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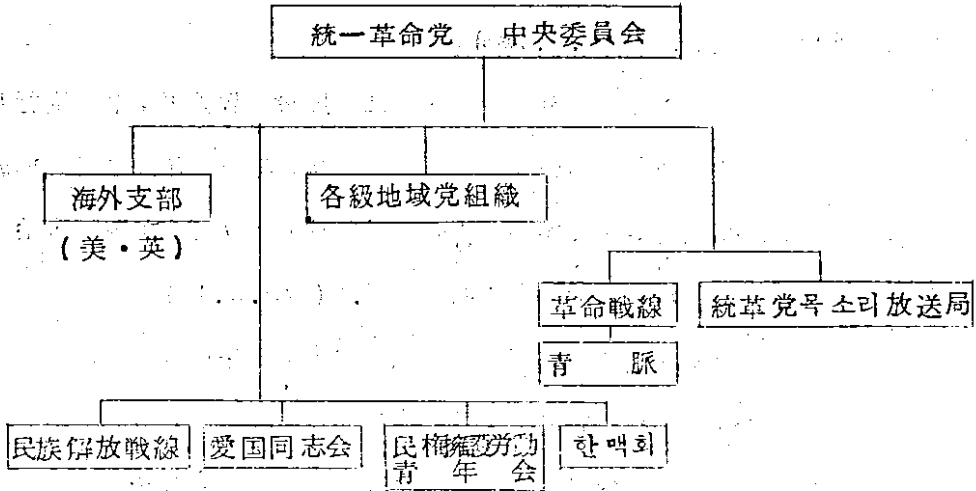
#### (1) 組織原則

- 主로 毛沢東의 戰略思想(人民戰線戰法)과 南勞黨地下活動의 敎訓을 바탕으로 「金日成의 統一事業에 對한 敎示」에 立脚한 所謂 「朝鮮民族解放統一戰線」(「베트콩」式 聯合戰線 組織) 結成을 目標로 한.
- 「先組織, 後攻擊」의 毛沢東戰略에 따라 먼저 前南勞黨系 人物을 精髓骨幹으로 하는 黨指導部와 中間核心을 構築
- 精幹驍猛, 複線措置의 組織原則과 「重點布置」의 北傀指令에 따라 이들 精髓骨幹을 地下(裏面)에 布置하고 將次 表面組織으로 發展시키기 爲한 偽裝組織으로 反國家團體인 「反稱 統一革命黨」을 結成

(2) 組織現況 (가) 破壞當時 (1968年)



(+) 再建以後 (北傀發表에 根據)



(+) 其他組織

- 民族守護学生会 (서울)
- 愛國革命同志會 (서울)
- 4.15 研究小組 (서울)
- 金日成 主体思想研究小組 (서울)
- 反日民族守護會 (釜山)
- 金日成 主体思想研究小組 (釜山)
- 金日成 主体思想女性研究会 (春川地区)
- 鄉土會 (全北 김제郡)

(3) 活動內容

- 黨組織들에서는 每個 黨員들이 自己가 活動하고 있는 地方의 具體的 實情과 民衆의 生活處地와 結付하여 黨 宣言

과 綱領을 研究하도록 한 다음 人民속에 들어가 解說 宣傳하도록 했음. ( 70.7.29 )

○ 黨組織들에서는 우선 系統的으로 民衆 教養事業을 進行할데에 對한 地域的 範圍를 選定하고 그 地方 住民들의 構成 狀態, 思想傾向, 住民實態 등을 了解하고 그에 따라 政治 教養事業의 運營과 活動을 始作했음. ( 70.8.13 )

○ 우리 革命家들은 廣範圍 民衆들 속에 뿌리를 내려야 거기에서 大衆에게 새 歷史創造에 偉大한 힘을 키워 줄 수 있다는 것을 銘心하고 合法的인 親隨團體로 부터 非合法的인 統一戰線에 이르기까지 數많은 郡衆團體들을 結成하였음. ( 71.8.1 )

○ 서울市 모 地區黨 傘下 모 黨 附體에서는 黨中央委員會 結成과 綱領 發表 3週年을 契機로 金日成主體思想으로 貫通된 黨의 宣傳과 綱領을 깊이 있게 研究하고 있음.  
( 72.8.25 記事 )

○ 서울市 地區黨 傘下 모 세포에서는 새해에 들어 서면서 지난 해의 對民 宣傳活動을 總和하고 올해의 宣傳方向과 當面課題를 確定하고 發展하는 革命情勢에 부응해서 郡衆政治 工作을 더욱 活潑히 展開하기로 했다. 黨 網包의 指令을 받고 가난한 庶民層이 雲집되어 있는 板子村에서 活動 하던 金某 同志는 하루 저녁 3~4名의 郡衆과 자리를 같이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음. ( 73.2.5. 記事 )

○ 忠南道黨委員會에서는 黨中央委의 方針에 따라 지난 5月 對民政治宣傳 特別月間에 즈음한 事業定型을 決算하고 여기

에서 黨員 同志들이 達成한 成果와 經驗들을 評價했음.

(73.7.9)

- 서울시黨委員會, 慶北, 全南道黨委員會 通報에 따르면 平壤 放送을 통해서 伝해진 金日成의 6月23日 演說全文을 錄音한 後 綿密한 組織으로 所屬黨員들에게 反復 伝達했음.

(73.7.14)

#### 나. 宣傳, 煽動活動

##### (1) 手段 (媒体)

##### (가) 統一革命黨목소리 放送局

- 開局日時: 70.6.1

所在地: 海州 近郊

放送時間: 總 8時間 30分

(아침 06:00 ~ 08:00

낮 12:00 ~ 14:00

저녁 19:00 ~ 23:30)

出力: 100 Kw

周波數: 短波 4,120 Kc, 中波 1,135Kc;

4,557 Kc

##### ※ 對南放送의 變遷過程

- ① 1962.4.3 「말스.레닌」主義 放送大學 創設  
北伊 高等教育省에서 韓國의 青年學生들과 人民들에게  
「말스.레닌」主義 輸出
- ② 1967.3. 「南朝鮮解放民主民族聯盟 放送局」設置

韓國內의 地下党組織 專用放送局으로 仮装 放送 開始

- ③ 1970.6.1 「統一革命党목소리」放送局으로 發足 統一革命党 中央委員會 專用放送局으로 仮装

※ 放送強化推移

- ① 開局以後

毎日 2時間 (21:00 ~ 23:00)

- ② 73.3.1 以後

毎日 6時間으로 延長 (아침 06:00 ~ 18:00

저녁 19:00 ~ 23:00)

- ③ 73.6.1 以後

英語放送開始, 毎日 30分 總 6時間 30分으로 延長

(08:00 ~ 08:30)

- ④ 70.6.11 以後

英語放送時間變更 (23:00 ~ 23:30)

- ⑤ 73.8 以後

每週 日曜日 19:30 ~ 20:00 正規放送 (平放 및 中

放)에서 中繼

- ⑥ 73.11.10

短波 1個 增設로 總 3個 周波數

※ 新設周波: 短波 4,120 KHZ

※ 既設周波: 中波 1,135 KHZ, 短波 4,557 KHZ

- ⑦ 74.4.14 以後

毎日 8時間 30分으로 延長 (毎日 12:00 ~ 14:00 追加)



(나) <革命戰線> (統一革命党中央委員會 機關紙)

創刊日時 : 65.3

發行處 : 統一革命党中央委員會 (서울, 革命戰線社로 偽裝)

紙 型 : 「타브로이드」版 6面

刊 別 : 旬刊에서 73.12.13자로 隔日間(週 3回)로  
增刊

(가) 其他

青脈誌等 刊行物

※ 青脈誌 : 1964.8 創刊

1968.7 「統一革命党事件으로 停刊, 다시 1972.

9. 統刊 發行所는 서울特別市 「青脈

社」로 偽裝

(2) 内 容

(가) 特定人 誹謗

① 朴大統領

○ 特히 最近 年間に 와서 朴○○는 以北에서 내놓은 平和統一 方針을 받들고 그것을 實現하기 為해서 싸운 統一革命党的 金중태, 최영도 同志를 비롯 수많은 革命家들과 愛國者들을 잔인하게 虐殺하였고 統一 云云한다는 罪 아닌 罪를 씌워 우리 民衆을 裁判도 없이 処刑하는 犯罪 行爲 敢行. (70.12.30)

○ 朴○○一党은 자들의 戰爭挑發策動을 正当化하고 戰爭의 責任을 轉嫁시키며, 우리 民衆속에서 날로 高潮되고 있는

나라의 統一氣運을 抑制하고 戰爭準備를 強化하여 이른바 勝共統一의 野望을 實現해 보려고 策勵하고 있다. 이 명에서 美·日帝國主義者들의 統治를 清算하고 朴○○ 亮 國逆賊을 打倒하기 爲하여 총력기하자. (71.12.4는단)

○ 外務部長官 金勇익이 美國에 가서 美軍의 永久強占을 哀乞하고 으며 朴○○ 自身이 日本에 찾아가겠다 는 것은 露地에 빠진 그들이 外務에 依存해야 그 어떤 出路를 찾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72.10.14論評)

○ 惡名 높은 反共法을 비롯해서 數千數百의 「反共」惡法 을 만들었고 또 지금까지 있어온 적이 없던 中央情報部 를 비롯하여 各種 暴壓機構을 大的으로 增設하고 朴○○ 亮을 비롯한 各種 暴壓機構을 大的으로 增設하고 朴○○ 亮을 排斥시키는 朴○○ 亮을 가리켜 「오끼모도」大統領 이라고 부르므로 親日売國奴를 斷罪하여 叱탄하는 것은 至極히 當然함. (73.9.6記事)

② 金鍾泌 國務總理

○ 金鍾泌이 「너는」앞에서 韓·美間의 血盟關係에 對해서 介介하여 엮는 美國의 侵略政策을 叱탄하고 그를 充實히 執行함으로써 韓國을 永遠히 美帝國主義者들의 植民地로 만들겠다는 上에 忠誠의 誓約으로서 추악한 走狗 로서의 正體를 大시금 들어낸 것임.

K  
7  
外

73.8.21 時事論評)

(3) 李厚洛 部長

- 殺人惡黨이며, 강패頭目인 李厚洛은 今番 聲明에서도 南北對話가 不振되고 있는 責任이 마치 以北에 있는듯이 事態를 描写하려고 試圖하였음. (73.8.29 論評)

(4) 金溶植 外務部長官

- 4.25 「워싱턴」에 머무르고 있던 外務部長官 金溶植이 記者會見 席上에서 韓國軍이 越南戰爭에서 가장 큰 損失을 입었다고 말했다. 뻔뻔스럽고 거짓말 잘하는 金溶植까지도 國軍의 慘酷한 戰況의 一部의 一部나마 實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 (72.4.29 記事)

- 2.21 外務部長官 金溶植은 英國 首相과의 會談에서 또 다시 나라의 民族을 背反하는 惡辣한 暴言들을 늘어 놓음으로써 民衆들을 비롯한 社會各界의 糾彈의 목소리를 높이게 했음. (73.2.23 論評)

(5) 海兵隊 司令官

- 海兵隊 司令官은 지난 2.21 西部副總 청룡部隊를 巡視하면서 또 다시 있지도 않은 南侵危脅을 들고 나오면서 自主的 戰略態勢의 確立에 만전을 期하라고 力說했다. 이는 南北사이에 團結과 合作에 依한 平和統一이 아니라 勝共統一의 野望을 露骨의으로 들어낸 것이라 하겠음 (73.2.22 論評)

(나) 政府 및 政策非難

- 朴○○의 平和統一 構想이란 것은 國土統一을 가로막기 爲한 U N監視下의 統一論에 平和라는 防牌을 하나 더 붙인 데 不過, 朴○○一黨의 平和統一 云云은 民衆속에 높아가는 統一氣運을 撫摩시키려는 術策임. (70.9.18 論評)
- 高速道路는 軍用道路이며 外國資本을 끌어들이고 地下資源을 掠奪한 道路임. (71.5.14)
- 5.25 不正狹隘選舉는 오직 美帝國主義者들이 選民들의 裁權을 合理化하기 爲한 演劇에 지나지 않음. (71.5.26)
- 民主共和黨은 所謂 非常事態宣言의 立法措置로서 이른바 國家保衛에 關한 特別措置法을 造作하였는바 이는 非法적으로 宣布한 非常事態宣言을 合法化하고 앞으로는 任意的時刻에 非常事態를 宣布하기 爲한 法案으로써 軍事「팍쇼」 獨裁政權下에 더욱 徹底히 묶어 놓고 民衆取奪과 彈壓에 더욱 拍車를 加하는 前無後無한 「팍쇼」의 惡法임. (71.12.23)
- 朴○○ 一黨이 새마을運動을 繼續 밀고 나가려는 目的은 民衆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平和統一氣運을 억누르고 農民들에 對한 擄取와 掠奪을 더욱 強化하기 爲한데 있음. (72.5.19 論評)
- 韓·日協定에는 이른바 韓·日國交正常化의 美名下에 꾸며진 韓·日基本條約이란 것이 있는데 이는 韓·日間에 軍事

結託을 맺게하고 過去 日帝侵略을 合法化했고 이른바 外交  
關係까지 設定하게 한 徹頭徹尾 売国條約임.

( 72.6.22 記事 )

- 10月維新이 노린 目的은 各界民衆들의 平和統一運動을  
銃劍으로 鎮壓하고 1人制 總統制를 構築해서 長期執權의  
野望과 勝共의 妄想을 實現해 보자는데 있음.

( 72.11.16 解説 )

- 10.27. 朴○○ 一黨은 非常戒嚴令下의 恐怖雰圍氣속에서  
이른바 憲法改正案이라는 것을 내놓았는데 이는 다시 말해  
서 總統的이고 絶對君主的인 統治下에서 長期執權을 繼續하  
려는데 있으며, 또한 平和統一의 看板아래 民衆을 欺瞞하면  
서 軍事獨裁統治에 障礙가 되는 일체 愛國的이고 民主主義  
的인 勢力들을 除去하고 이른바 實力을 培養해서 勝共統一  
野望을 實現해 보자는데 있음. ( 72.11.17 論評 )

- 戰鬪能力向上이라는 美名下에 陸軍은 수일前부터 休戰線이  
가까운 春川市 北部地域一帶에서 冬季 大機動訓練을 本格的  
으로 벌리고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7.4 南北共同  
聲明과 그를 履行하기 爲해 南과 北이 實際的 措置를 取  
할데 對한 南北의 合意事項에 對한 嚴重한 違反行爲이고  
爲政当局者들이 平和統一을 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勝共統一의 野望을 實現해 보려는 그들의 本心を  
그대로 들어 내놓은 것임. ( 73.1.10 論評 )

○ 朴○○의 政治는 売辦財閥이나, 大企業이나, 資本家나 또  
는 不正腐敗한 高級官僚輩, 高級將校 以外の 모든 階級階  
層들 모든 民衆들에게선 完全히 원수와 같은 民衆들의  
生活를 짓밟는 그런 「팻쇼」政權이고 獨裁政權이란 것을  
「윤필용事件」을 통해서 백일하에 들어내 보이고 있는  
것임. (73.5.2)

○ 지난 5月31日부터 6月3日까지 서울 여의島 廣場  
에서는 「빌리·그레함」伝道大會라는 것을 벌였는데 이는  
美國侵略者들과 朴○○ 一党的 陰謀가 스며있다는 것을  
그대로 말해 주고 있으며, 國民들의 不平, 不滿을 撫摩하  
며 國民의 耳目을 탄대로 돌려서 公堂에서 헤어나 보려  
는 狂亂劇이라 말할 수 있음.  
(73.6.2 談話)

○ 平和的으로 祖國을 統一하자고 7.4 共同聲明에서 宣稱  
해 놓고 民防空訓練이요, 뭐요 騷動을 벌리고 있는데 이  
는 朴○○ 一党이 南北對話, 南北統一에는 關心이 없고  
南北對決과 民族分裂, 隣共統一에만 血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임.

(73.6.17)

○ 朴政權은 지난 6月23日 美帝國主義의 부추김밑에 特  
別聲明이란 것을 내놓고 南北의 分斷, 2個의 朝鮮造作選  
動을 내놓았음. (73.6.30 談話)

- 美帝國主義者들과 朴政權間에 꾸며진 이른바 韓·美年例安保協議會의 共同聲明은 國民의 統一指向에 對한 亂暴한 挑戰이며, 우리 祖國의 自主的, 平和的 統一을 支持하는 世界 公正한 輿論에 對한 背信行爲임을 強力히 糾彈함. (73.9.14 談話)
- 오늘 朴○○徒黨은 學園을 野獸的으로 彈壓하는 한편 反共의 看板 밑에 眞理探究의 전당인 學園을 軍事練兵場 情報查察마당으로 轉變시켰으며, 民主言論을 「팻쇼」獨裁의 附屬物化하고 國會에서 조차 이른바 國事論議의 自由마저 蹂躪하고 있음. (73.10.4 聲明)
- 一黨 獨裁의 確立, 南北對話의 破綻과 두個 韓國路線의 政策化, 日本獨占資本의 隸屬加速化, 中小企業의 도산과 國民生活의 加一層의 零落, 이것이 바로 10月維新一年間의 產物임. (73.10.17 記事)
- 10.25 서울大學校 教授들과 學生 等 數十名이 網羅되어 있다는 그 무슨 歐羅巴 拠点 間諜團事件이라는 것을 摘發檢拳했다고 發表하고 그들이 政府顛覆을 陰謀하고 武力赤化統一에 同調해서 反國家의 活動을 했다고 떠들어 댔고 여기에 이번 反獨裁鬪爭에 參加한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法科大學을 비롯한 서울大學校의 教授들과 學生들을 關聯시켰음. (73.10.25 論評)
- 中央情報部는 韓國民의 自由와 民主主義的 權利를 빼앗는 最大의 暴力機關이며, 社會正義와 民主主義 그리고

勤勞者들의 權利와 權益擁護를 爲하여 싸우는 大衆運動의 絞殺者이며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爲하여 싸우는 愛國者들을 投獄하고 虐殺하는 歷史의 類例없는 惡毒한 絞刑吏들의 소굴임. (73.8.30 記事)

- 學生들의 正義의 愛國鬪爭을 苛酷하게 彈壓해 오던 朴○○「팻소」 獨裁政權은 드디어 11月30日 서울과 地方의 各 大學들에 早期 放學令을 내렸다. 爲政當局의 이러한 早期放學措施는 青年學徒들의 反政府의 抗拒로 窮地에 몰릴 때마다 萬病通治學的이라 할 수 있는 常套의 인學生 彈壓 手法임. (73.12.1 統革黨代弁人 聲明)

(4) 社會相 非難

- 諷詩 「五賊」은 賈辨資本家, 國會議員, 惡質公務員, 將星, 長次官 이런 者들의 燦爛하고 호화방탕한 生活을 풍자한 解說이며 祖國과 民族앞에 저지른 萬古 大罪와 놈들의 穢을대로 穢고 醜을대로 醜은 內面世界를 그 몇百分의 일 몇千分の 일도 미처 다 털어놓지 못했다고야 할 것임. (70.6.21)

- 서울市 保健當局이 市內 213 個 接客業所에서 쓰고 있는 高추가루를 檢査한 結果 50%가 人體에 害로운 不良고추를 使用한 것이 밝혀졌다고 함. 이것은 남이야 죽건 병들건 내배만 부르면 된다는 思考方式이 支配하는 穢고 병든 이 땅의 社會 風潮를 보여주는 하나의 事實에 지나지 않음. (70.10.6)



○ 全国各地에서는 굶주림에 허덕이다 못해 自殺事件이 나  
고 反面에 몇몇 特權層들은 富貴榮華를 누림. (71.3.14)

○ 이 땅의 보리고개는 封建的 小作制度와 고리채 搾取의  
助長, 尨대한. 美國剩餘 農産物의 壓迫에 依한 農業生産力  
의 破壞, 軍糧米와 軍需費 調達을 爲한 掠奪 等 美國의  
20 年間に 걸친 侵略的 掠奪的 新植民地 統治가 가져다  
준 必然的 後過이며, 朴○○ 惡政이 빚어낸 人工的인 보  
리고개임. (71.7.16)

○ 이 땅에는 美帝의 侵略과 戰爭政策에 따라 增大되는  
軍事的 수요를 充足시키기 爲한 軍需工場들이 大大的으로  
育成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 庶民들의 生活과는 아무  
런 關係도 없는 것이고 또 民族産業이나 國民生活을 向  
上시키기 爲한 것도 아님. (72.1.25)

○ 이 땅의 實際 統治者는 美帝이며, 大韓民國은 그들의  
植民地 偽裝物에 지나지 않으며 韓國은 내가 사는 내나  
라가 아니라 庶民 大衆에게는 地獄이지만 少數 特權 搾  
取層들에게는 천당인 것이 바로 韓國社會다.

(72.4.28 解說)

○ 이 땅에는 기막힌 処地의 少年, 少女들이 수없이 많은  
데 이것은 黃金이 고는 것을 支配하는 썩고 病든 韓國  
의 社會制度가 낳은 産物이고 爲政者들의 反人民的인 施  
策의 直接的 後過인 것임. (73.2.1 記事)

○ 少年 勞動의 急速한 增大, 이것은 朴○○ 一黨의 惡政

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 民衆이 겪고 있는 民生苦의 또 하나의 集中的 表現이라고 할 것임. (73.10.25)

- 오늘 이 땅에서는 史上最惡의 生活苦가 國民의 生을 威脅하고 있고 都市와 農村 그 어디를 가나 이대로는 더는 못살겠다는 아우성임. 都市의 勞動者들은 最低 生計費의 3分の1이나 되나 마나한 기아임금에 명줄을 걸고 하루 12時間~14時間의 奴隸勞動에 혹사당하고 있다. 就業權마저 빼앗긴 數百萬을 헤아리는 失業群衆은 絶望의 나날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 (73.12.24 解説)

#### (라) 反政府 煽動

##### ① 勞動者

- 勞動爭議는 勞動者 自身の 生活処地와 關聯되어 있기 때문에 鬭爭을 통해서만 解決할 수 있다. 혼자 不平하고 태만하는 것보다 여러사람이 鬭爭하여야만 解決할 수 있다. 經濟的鬭爭을 社会民主的權利와 自由保障을 爲한 鬭爭으로 結付시켜 나가야 함. (71.2.19)

- 各界 勞動者들의 鬭爭은 「鬭爭」化를 反對하고 生存의 權利와 民主主義的 自由를 찾기 爲한 至極히 正当한 鬭爭으로서 全民衆이 合心, 團合해서 싸우기만 하면 원수들의 그 어떤 惡辣한 「鬭爭」暴行이라도 물리칠 수 있으며 한결같이 들고 일어나 싸우기만 한다면 生存의 權利와 民主主義的 自由를 爭取할 수 있다는 教訓을 주고 있음. (72.6.5 記事)

○ 勞働者들을 抑圧하고 搾取하는데 이골이 난 當局者들과 한배속인 惡質企業主들은 勞働者들이야 굶어 죽진 얼어죽진 아랑곳 하지 않고 勤勞者들의 高血을 짜내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오직 굳게 뭉쳐 싸우는 길만이 우리 勤勞者들이 오늘의 無權利에서 脫被하며, 살길을 마련하는 唯一한 길인 것이다. (73.12.21 記事)

## (2) 農 民

○ 오늘날 農民들의 基本課題는 朴○○徒黨의 戰爭政策을 爲한 道路工事와 軍事基地 擴張 等 工事들로 인한 掠奪과 収奪策動을 反對하는 鬭爭을 當面한 營農條件과 生活 對策을 爲한 鬭爭에 結合시켜 展開해야 함. (71.2.1)

○ 朴○○ 一黨은 사람들이 굶주려 쓰러져 가고 있는데도 지도 않는 南侵이요, 戰爭이요 하면서 非常事態까지 宣布해 놓고 生産費도 안되는 철값으로 農民들의 秋穀을 굶어들여 軍糧미를 쌓아놓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農民들은 非常事態 即刻 撤回하라, 戰爭準備 그만두고 軍人이 되어 달라, 鬭爭으로 살길을 찾고 統一의 門을 열자, 이런 口號를 내걸고 鬭爭에 躍起해야 할 것임.

(72.4.27 記事)

○ 極甚한 食糧難에 물리게 된 朴○○ 一黨은 食糧消費를 抑制하기 爲한 術策을 쓰는 한편 外穀 導入量을 더욱 늘리고 있다. 農業生産을 쇠퇴에 몰아넣고 食糧을 抑制하는 當局의 処事는 民衆의 不滿과 激憤을 자아내고 있

음. (73.9.26 論說)

③ 青年学生

○ 学園의 軍專化 및 「팻쇼」化를 反對하는 것은 学園의 民主化, 正常化를 成就하려는 正當한 鬭爭임. (70.10.16)

○ 教練反對, 学園查察中止를 欲하는 學生들의 示威는 正義와 愛國心에 充滿한 心藏의 의침이다. 統一革命黨은 이 땅의 全民衆과 함께 後代들의 자랑찬 抗爭에 支持 聲援을 보냄. (71.4.8)

○ 當局者들의 擄取行爲가 極甚한 近向에 이르러 學校에서 쫓겨나는 學生數는 더욱 더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学園의 謀利化를 反對해서 鬭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学園의 民主化와 배움의 權利를 爲한 鬭爭으로서 至極히 正當한 것이다. 學生들은 合心 協力해서 学園의 民主化와 배움의 自由를 爲해서 繼續 勇敢히 싸워야 한다. (72.6.28 論評)

○ 統一革命黨은 正義로운 學生들의 愛國鬭爭을 野獸的으로 彈壓하고 있는 朴○○軍事「팻쇼」徒黨의 野蠻行爲를 온 民族의 이름으로 峻烈히 糾彈하면서 愛國學生들에 對한 「팻쇼」의 彈壓行爲를 即時 中止하고 逮捕拘禁한 學生 全員을 無條件 釈放할 것을 強力히 主張함.

(73.10.4 党中央委 聲明)

○ 愛國衷情에 불타는 梨花女子大學校 學生들은 언제나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도 질식된 自由와 民主化를 찾고 非

正隊列을 바로 잡기에 維新獨裁의 장막을 헤치며 鬪爭에 일어섰음. (73.11.29)

- 親愛하는 全体 高等学校學生 여러분, 只今 싸우는 大學生들은 4.19 抗爭의 그날 가슴을 후려치며, 원수들의 「탱크」를 맞받아 나가던 高等学校의 正義의 鬪爭을 또 다시 鬪爭의 廣場으로 부르고 있음. (73.12.4)

④ 公務員, 知識人

- 朴政權은 大統領選舉에 勝利키 爲해 不正狹雜選舉에 公務員을 내몰고 있다. 只今 一部 勞動者나 公務員들이 選舉運動에 投身하여 날뛰는 것은 民族을 反逆하는 걸림. (71.4.26)

- 不正選舉를 反對하고 學園의 民主化를 爲해 싸우는 學生들에게 社會正義와 不正을 가릴 줄 아는 教授를 비롯한 知性人들은 필봉을 들어 鬪爭隊列에 앞장서라 (71.5.27)

- 言論은 名實共히 民主의 손이 되기 爲해서도 그렇고 또 타락된 言論을 잡기 爲해서도 그렇고 하루 빨리 民主主義的 言論이 保障되어야 勞動者, 農民, 모든 사람들, 世界集團이 모두다 自己의 意思를 내놓을 수 있고 社會輿論을 公正히 내세울 수 있으며, 따라서 社會를 바로 꾸려 나갈 수 있는 民衆의 필봉이 되는 것이다.

民主主義的 言論을 마련하자면 自由를 爭取하기 爲한 싸움을 벌려야 함. (72.4.7)

- 우리는 韓國의 모든 言論人들의 뜨거운 愛國衷情과 民

族的 良心에로 되돌아 가 自由와 民主正義와 正義守護의 鬪争으로 전철된 韓國言論의 傳統을 빛낼 것을 強力히 促求하면서 이에 反獨裁 民主守護의 正義 言論誕生을 宣言함. (73.10.3 民主守護学生会 宣言文)

○ 窮地에 빠진 朴○○ 賣國政權의 末期증상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며, 軍專獨裁의 아성이 무너져 임종의 時刻은 가까워지고 있다. 이러한 時刻에 大學敎授들은 싸우는 세자들의 편에 서서 民族의 良心과 知性人의 道理를 지키고 眞正한 自由와 幸福을 구가하느냐 아니면 죽어가는 난고逆賊들의 壓力에 屈服해서 그들과 滅亡의 運命을 같이 하느냐 하는 불음에 對答해야 할 責任의인 時刻에 다다랐음. (73.12.4)

(5) 國 軍(豫備軍 包含)

○ 當身들은 누구를 爲해 祖國 배를 움켜쥐고 訓練勳員에 끌려 다니며 愛國者들을 索出하는 길로 끌려 다니나, 눈물이 間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신들 처럼 굶주리고 학대받는 民衆의 아들 딸로서 朴○○逆賊들을 없애려고 鬪争의 길에 나선 革命家들임. (70.10.30)

○ 金日成이 領導하는 共和國품에 안긴 「이정인」國軍士兵은 只今 無限한 幸福感을 禁치 못하면서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平壤放送은 傳하였음. (71.1.25)

○ 朴○○ 一黨이 全軍 新자화運動을 베틀기로 한 것은 國軍將兵들 속에서 높아가고 있는 階級的, 民族的 覺醒과

反抗意識을 徹底히 거세해 버리는 同時에 그를 수에서

남로 높아가는 各種形態의 義로운 鬪爭을 미리 막아 보

려는데 있는 것이다. 國軍士兵들과 中下層將校들, 民族的

良心을 지낸 모든 國軍將兵들은 決코 全軍 新자화運動이

라는 術策에 걸려들지 말아야 함. (72.3.30)

○ 韓國青年들은 모두 다 軍服務를 단연코 拒否함으로써

同族과 歷史앞에 罪를 짓지 말아야 함 것이며, 各階層

民衆과 더불어 反獨裁 民主化 鬪爭에 힘있게 떨쳐 나서

야 함 것임. (73.10.20)

(卅) 南北對話關係

○ 南北公談의 期待를 견지 말라는 것은 남로 높아가는

民衆의 統一氣運과 鬪爭의 질급해서 마지못해 南北赤十字

會談을 의논되 應하기는 했으나 統一을 反對하는 자들의

荒國背族의 姿態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

로 가밖히 좋은 것임. (71.8.17)

○ 같은 同胞끼리 相互 信賴하고 尊重하는 原則에서 서로

接觸하고 對話한다면 南北사이의 社會制度上 차이를 超越

해서 不信任과 誤解는 漸次 解消되고 共通點을 찾을 수

가 있을 것임. (72.6.18)

○ 李厚洛은 南北對話가 始作된 以後 韓國社會의 民主化와

國土의 平和統一을 爲해 싸운 우리 統一革命黨의 堅決的

정배부 等 많은 愛國者들을 무참히 虐殺했다. 이것은

7.4 南北共同聲明에 對한 露骨의인 陰謀行爲로서 그들이

부르짖는 国土統一의 口號가 하나의 外勢依存에 依하고  
南北共同聲明도 南北對話도 다 내던져 버렸다는 것을 明  
白히 한 것으로 밖에 달리 解釋할 수 없다.

(73.8.29 論說)

(甲) 平和攻勢

○ 우리의 統一問題는 一時的으로 갈라진 南北同胞들 間에  
紐帶를 回復하고 全体民衆의 意思에 맞는 하나의 政府와  
政治社会制度를 세우는 問題가 나서는 만큼 그러한 政府  
와 社会, 政治制度를 세우는 問題는 오손 도손 協議에서  
풀어야 함. (70.9.12 解說)

○ 이 땅의 民主共和黨을 包含한 모든 政黨, 社会团体 個  
別的 人士들과 아무때나 만날 用意이 있다는 金日成의  
提案은 朝鮮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接受될 수 있는  
가장 公明正大한 方案임. (71.8.26)

○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政府는 南北間에 接觸과 協商을  
始終一貫 主張해 왔고 또 하고 있다. 지금 매듭게나타  
南北赤十字团体들 間의 會談이 進行되고 있는 것도 바로  
共和國政府의 이런 꾸준한 努力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아  
야 할 것임. (72.6.15 記事)

○ 金日成이 6月23日 演說에서 提示한 5大綱領은 自主  
的 平和統一의 새로운 展望을 열어주고 그것을 勝利어로  
終着시킬 수 있는 偉대한 統一綱領임.

(73.6.30 党中央委聲明)



(사) 美·日非難

- 美国놈을 맥으로 하여朴○○의 竊案內를 받아 親善과 協力을 提唱하며 철면피하게 기여든 日本帝國主義는 이 나라의 政治, 經濟, 文化, 軍事 等 모든 分野에 再侵의 魔手를 깊숙히 별쳤으며 主人으로 美国놈과 함께 登場하여 온갖 無禮한 行動을 다 하고 있음. (70.6.23)
- 美帝는 이 땅에 기여든 첫날부터 一貫하여 우리 韓國을 저들의 植民地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以北과 亞細亞를 侵略하려는 兇惡한 目的을 追求하여 왔음. (71.9.9)
- 美帝國主義者들은 侵略的 目的을 實現하기 爲해서 이 땅에 이른바 援助를 통해서 韓國經濟의 命脈을 掌握하고 經濟全般을 저들에게 徹底히 隸屬시켰음. (72.1.25)
- 양키들은 韓國사람들이 願하지도 않는데 이 땅에 기여들어서 벌써 近30年間이나 強占하고 갖은 橫暴들과 蠻行을 繼續 敢行하고 있습니다. (73.8.13 論評)

(b) 北傀讚揚 (金日成讚揚包含)

- 金日成에 依해서 創建되었고 世界万方に 그 빛을 뿌리고 있는 朝鮮勞動黨은 지난 25年間 「맑스·레닌」主義黨으로 發展하였고 어떠한 風波도 헤쳐가며 革命을 勝利의 한 걸로 確信性있게 이끄는 百戰百勝의 革命的黨으로 되었음. (70.10.10)
- 모든 어린이들을 빠짐없이 無料로 保護 育成하는 그 尙

대한 政府의 負擔은 眞實로 어린이들을 爲해서 모든 것  
을 아끼지 않는 以北과 같은 社會主義制度가 아니고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임. (71.5.6)

- 金日成은 現 時代의 矛盾 現 時代의 世界革命性格과 任  
務 등을 가장 科學的으로 洞察 分析하고 現時代 國際共產  
主義運動과 勞動運動의 發展方針, 反帝反美 鬪爭戰略 植民地  
人民들의 民族的 獨立과 社會的 進步를 爲한 鬪爭方針들을  
가장 現實的으로 明示해 주었다. (73.8.28 記事)

以上에서 統革黨의 개황 및 演說과 活動을 分析해 봄으로써  
개략적인 對策方向을 論述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고 하겠다.

## 5. 結 論 ( 對策方向 )

北韓의 對南人民革命戰略은 以上으로 본 바와 같이 가까운 將來에 實効를 거둘 것을 目標로 한 短期的戰略이라기 보다는 南韓內部的 分裂을 可能한 限 助長하므로써 南韓의 對共자세를 교란시켜 「언젠가 있을 남조선해방」을 앞당기자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大韓民國의 內部的 分裂을 助長하는 方法은 곧 南韓의 脆弱點을 最大限으로 利用하는 것일 것이므로 우리는 이러한 脆弱點을 早速히 補完 시정토록 努力해야 될 것이다.

첫째, 理念面에서, 「韓國的 民主主義」의 內容을 좀더 具體적으로 明確히 밝히고 理論적으로 體系化해야 되며

둘째, 政治的 側面에서 政治的自由의 限界를 明確히 한은 勿論 政治的自由의 制限이 執權黨의 執權계속을 爲한 政敵彈壓의 手段이 안되도록 制度의 措置를 講究하고 反政府 運動과 反體制 運動( 共產主義 運動)을 混動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말 것이며

셋째, 모든 社會的 病弊를 없애는 데에는 權力이 개재된 不正에 대하여 加重의 處罰, 公務員의 기강確立, 實績本位主義의 고취를 무엇보다 強調할 것이며

넷째, 低所得層의 계속적인 保護를 추구할 것이며 株式公募와 새로운 經營 中間階層(New managerial class)의 養成에 의한 大企業風土의 改善

다섯째, 一切의 地方的差別 및 對立의 惡習을 剷제토록 努力할 것이며 (必要하면 道의 명칭을 바꾸거나 道의 行政區域을 改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여섯째, 民族主義를 고취하는 것 ( 다만 前近代的인 국수주의는 배제 )

일곱째, 固式的인 反共教育을 止揚하고 効果的인 反共教育으로 代  
置할 것 등이 우선 시급히 요청된다.

이와 같은 制度的補完 및 是正이 이루어 지기에는 多小 時間이  
必要할 것인데 그동안에 注意할 點은 可及的이면 두가지 以上の  
龜裂의 線 (Cleavage line) 이 重複되는 것은 積極 避해야 될 것  
이다.

예를 들어 어느 地域은 地方的差別도 받고 經濟的으로도 落後되어  
있다면 龜裂의 線이 두개가 겹쳐져서 地方的差別만 받는 地域보다  
人民革命戰略에 致命될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  
에서 都市의 周辺, 特히 서울의 변두리가 現時點에서 反体制運動에  
참여될 소지가 가장 많다고 본 것은 바로 龜裂의 線이 여러개  
重複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筆者는 政府가 우선 全國的으로 이와 같이 龜裂의 線을 여러개  
包含하고 있는 地域부터 찾아내어 그에 대한 對策을 강구하는 一  
方, 또 한편으로는 위에 提示한 일곱가지 方案을 強力히 實踐할  
것을 建議하는 바이다.

## <附 錄>

### 1. 統 一 革 命 黨 宣 言

「과시즘」을 擧滅하고 人類再生의 黎明을 가져왔던 從前 二〇  
有餘年 그 以來 人類歷史는 실로 長足の 飛躍을 이룩했다.

긴긴 歲月 歐美 列強의 屬地로 되어 그 繁榮을 爲해서만 存  
在했던 被壓迫 3大陸이 이제 壓制와 屈辱의 오랜 歷史를 박차고  
民族解放의 英雄抗戰에 일어섰으며 大小民族들이 暴惡한 帝國主義  
鐵鎚를 끊고 마침내 民族自決, 民族中興의 長途에 올랐다.

장엄한 이 世界史的 激動과 기류속에서 以北兄弟들은 偉대한 社  
會主義變革과 驚異의 發展을 期하고 단연 世界萬方의 先進에 앞  
장섰다. 그러나 國土兩斷과 民族分裂의 悲劇的 與件下에 우리 韓國  
은 植民地 反封建의 後進性에서 脫皮하지 못한채 勿論 前代未聞의  
수난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이 땅에서 民族自主權이란 한갓 執權者들의 欺瞞的 口號와 요설  
에 不週하며, 실은 外勢依存, 隸屬, 不平等 民族的 恥辱이 全部다.

「自由」, 「民主主義」亦是 「憲法」의 紙面上에서만 有効하고  
실지로는 獨裁와 虐政이 관을 치며, 民衆을 질식시키고 있다. 經  
濟는 疲弊, 沒落의 惡循環을 거듭하여 貧死狀態에 이르고 韓國社會  
는 地區上 第1의 低所得地域으로, 失業의 王國, 기아와 疾病이 만  
연하는 처참한 奈落으로 化했다.

古今東西에 燦爛함을 자랑하던 民族文化는 그 本然의 姿勢를 잃고  
末世紀的 洋風, 倭風과의 혼탕물로 되고 말았다.

「不正腐敗의 一掃」를 標榜했던 「5.16革命公約」은 純眞한 民衆에 對한 一帶 欺瞞이 있으며, 獨資, 買収, 特惠, 暴利 等 少數 特權 官僚層과 買辦財閥들의 非行은 極度로 破廉恥해졌고 萬古逆賊 朴○○ 一黨은 旧惡을 밖칠 新惡의 化身으로 登場했다.

代代로 強要된 民族受難위에 더 加增된 이 未曾有의 亡國的 悲運속에서 民衆의 呻吟과 痛哭, 貧窮과 無權利는 極點에 達하고 우리 血鬨들이 処處에서 社會를 呪詛하며, 비명횡사하고 있는 것이 韓國의 現實이다.

물론이, 이 모든 痛嘆할 事態의 根源은 果然 어디에 있는가?

이는 오로지 美帝國主義의 軍事的 強占과 그 侵略政策에 있으며, 落後한 植民地 半封建的 社會制度에 있다. 「解放者」의 탈을 쓰고 기어든 美帝侵略者들은 自초부터 우리 韓國을 세놈들의 植民地로 轉換시키고 이 땅에서 實際的 統治者로 君臨했다.

이들은 自主自立과 民族的 獨立을 念願하는 우리 人民의 熱火같은 指向을 거세할 目的밑에 獨立의 外皮로 가식된 新植民主義 政策을 施行했다.

美帝國主義者들의 銃劍에 依해 捏造된 「大韓民國」政權은 그들의 植民地支配를 隱微하는 偽裝物이며, 우리 人民에게 그것을 強要하기 爲한 道具에 不過하다.

美帝侵略者들은 이 땅에서 加증스러운 植民地 反動統治를 強行키 爲해 우리 人民의 人的, 物的 財富를 강그리 탕진하며, 奸惡 無道한 「깡쇼」獨裁에 매달리고 있다.

실로 美帝國主義의 植民地 支配와 그에 依해 부지되는 後進的인

植民地 半封建的 社会制度, 이것이야말로 우리 社会의 一切 矛盾과 병폐의 根源이며, 또 그것이 바로 우리 겨레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不幸과 재화의 화근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人民이 压制와 貧窮에서 解放되고 眞正한 自由와 福利를 享有하는 出路는 오직 하나, 腐敗 變質된 現存制度를 顛覆하고 自主的이며, 民主主義的인 새 社会制度를 樹立하는데 있다.

搾取社会는 그 本性에 있어서 不平等的이다. 우리 社会에서 富貴榮華를 누리고 致富하는 者는 少数 寄生적 搾取階級이며 그 犧牲者들은 多數 被压迫 大衆이다.

그러기에 美帝侵略者들과 그 走狗인 地主, 買辦資本家, 惡質官僚輩들은 現 反動制度를 固守하고자 決死抗拒 하지만 勞働者, 農民, 青年學生, 知識人, 都市小市民 等 広範한 人民大衆은 그를 打破하는데 絶對的 利害關係를 가진다. 이 兩者는 불공대천의 원수이며 그 矛盾은 오직 決死的 鬪爭으로써만 終末된다.

韓國에서 革命은 必然的이며, 不可避하다!

무릇 革命은 해당 社会制度의 불상용적 矛盾에 그 客觀的 根源을 두고 있다. 革命은 「輸出」할 수도 없고 「輸入」할 수도 없다.

韓國革命은 韓國人民의 主動的 役割에 의해 遂行되어야 하며, 韓國의 被压迫, 被搾取大衆은 自己自身の 革命鬪爭으로 自由와 解放을 成就하여야 한다. 革命이란 反革命勢力에 對한 革命勢力의 판가리 싸움이며, 武装한 反革命은 오직 革命的 暴力에 依해서만 打倒될 수 있다. 우리 祖国의 被压迫, 被搾取大衆이 反革命을 打倒하

고 革命의 勝利를 達成하기 爲해서는 반드시 自己自身の 強力한 革命力量을 準備하지 않으면 안된다.

革命力量을 編成하고 그를 成長 發展시키는데서 中核으로 되는 것은 革命의 組織者이며, 향도력인 革命的黨을 가지는 것이다. 黨이 없이는 忘却속에 버림받은 人民大衆을 革命意識으로 覺醒시킬 수 없고 組織化할 수 없다. 黨의 領導가 있어야만 自然生長的인 大衆鬪爭을 目的意識的 革命鬪爭으로 發展시킬 수 있다.

革命的黨을 못가진 群衆은 參謀部 없는 軍隊와 같고 그러한 群衆으로서는 그 어떤 勝利的인 人民革命에 對해서도 말할 수 없다.

四. 一九. 장거를 決定的 勝利에로 終着시키지 못한 것도 究竟은 革命的黨이 없는데 基因했고 마찬가지로 強盜的인 五. 一六 脫權을 許用하고 그 후안무치한 찬탈자들의 反革命的攻勢를 挫折시키지 못한 것도 中당은 革命的黨이 없었고 그 領導가 欠如된데 歸着했다.

革命의 眞理와 反復된 피의 敎訓앞에서 이나라 民衆이 그처럼 갈구하여 止 않았던 것은 곧 被壓迫大衆의 意思를 體現하고, 그들의 鬪爭을 勝利에로 향도할 黨, 革命的 黨이었다.

우리 革命家들은 社會發展의 客觀的 要請에 呼應하여 그리고 피맺힌 歷史의 敎訓과 民衆의 熱願에 和答하여 이미 오래 前에 統一革命黨 地方組織들을 結成하였고 以後 數年間 간고한 地下革命活動을 展開해 왔다.

이제 우리는 前進하는 革命運動과 黨自体發展의 懇切한 要求에 따라 黨의 中央指導部를 組織하고 여기 統一革命黨 宣言을 世上에 公布한다.



統一革命黨은 그 階級的 基盤과 指導理念, 鬪爭目的上 一切 既成 政黨 政派들과 質的으로 區別되는 새 型의 「맑스·레닌」主義黨이다.

우리黨은 社會의 基幹的 役軍인 勞動階級과 農民을 爲始한 勤勞 人民大衆의 利益을 代弁하며 擁護한다. 黨은 이들 勞動者, 農民들과 勤勞「인테리」들의 先覺分子들로 組織된다.

勞動階級, 農民 等 勤勞大衆은 物質的, 精神的 富의 創造者이며 社會成員의 絶對多數를 占하고 있다. 이들을 떠나서는 社會의 存立도 民族의 繁榮도 想像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의 利益을 擁護함은 社會主義를 實現하는 大前題이고 同時에 그것이 곧 民族的 利益의 가장 透徹한 具現으로 되는 것이다.

統一革命黨의 指導理念은 「맑스·레닌」主義를 現時代와 우리 祖國現實에 獨創的으로 具現한 金日成同志의 偉大한 主体思想이다.

主体思想은 40余年間의 힘난한 革命의 暴風雨 속에서 完壁함을 誇示한 우리 時代의 「맑스·레닌」主義이다. 그것은 過去와 現在뿐 아니라 未來에 對해서도 無窮한 活力을 가지며, 우리 人民만이 아니라 全世界 數億萬 人民들의 進路를 輝煌히 明示해 주고 있다.

우리 黨은 바로 이 偉大한 主体思想을 指導理念으로 삼고 있기에 不敗이다. 우리 黨의 最高 目的은 社會主義, 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하는 것이다. 社會主義, 共產主義는 人類의 世紀的 宿望이며, 最高 理想이다. 여기서는 人間에 依한 人間의 抑壓搾取가 終局的으로 清算되고 自由, 平等, 福祉, 文明에 對한 人間의 指向이 비로소 完全히 그리고 徹底히 具現된다. 그러기에 王制者들은 온갖 手段과 方法을 다해 「反共」騷動에 狂奔하지만 社會主義, 共產主義의 勝利는 不可抗力的이며, 그를 沮止시킬 힘은 이 世上에 없다.

韓國社會發展의 現段階에서 社會主義, 共產主義에로의 進路를 打開하기 爲해서는 우선 社會的 前進을 저해하는 植民地 半封建的 社會制度를 掃蕩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黨의 當面目的은 韓國에서 人民民主主義革命을 遂行하여 腐敗한 植民地 半封建的 社會制度를 顛覆하고 그 무덤위에 人民民主主義制度를 建立하며, 나아가서 民族의 希願인 國土統一의 大業을 成就하는데 있다.

黨은 우리 강토위에서 美國侵略軍을 激退하고 傀儡政權을 打倒하며, 自主적이고 民主主義的인 人民의 政權을 樹立할 것이다.

黨은 民衆에게 참된 自由와 權利를 賦與하고 土地改革과 重要 産業國有化를 爲始한 諸般 民主主義變革을 斷行하며 經濟와 文化의 復興發展과 民生問題의 早速한 解決을 圖謀할 것이다.

黨은 南北間의 人事來往, 書信去來, 文物의 交換, 交流 等 民族融合을 爲한 漸進的 諸措置를 積極 講究하며, 外勢의 干涉을 排擊하고 南北總選舉에 依한 民族自律的인 平和統一을 成就하기 爲해 분투한 것이다.

우리 黨의 當面目的이 實現될 때 韓國은 真正 韓國人의 韓國으로 되고 主權은 原來 主權者인 人民의 것으로 되며 一切 創造物은 그 製造者들 自信의 福利를 爲해 利用되며, 한줄기의 地脈과 血脈으로 이어진 三千里 강토와 四千萬 民族은 統一된 祖國에서 길이 富強繁榮할 것이다.

전일적인 統一革命黨의 出現은 우리 人民의 社會政治生活上 特記할 事變이며, 韓國革命發展에서 轉換點으로 된다.

우리 人民은 自己 權益의 真正한 擁護者 革命의 參謀部를 가지게 됐고 統一團結의 確固不動한 求心點, 鬪爭의 偉大한 旗幟를

지나게 됐다. 이제 韓國의 被壓迫, 被擄取 人民大衆의 鬪爭은 盲目性에서 脫皮하여 正確한 方向角에 따라 前進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終來의 分散性을 克服하고 黨의 統一的인 嚮導下에 하나의 거세찬 革命運動으로 發展하게 될 것이다. 勿論 우리의 進路는 坦坦大路가 아니다. 自由와 民主主義의 陣地도 찾아 볼 수 없고 一切 先進思想과 進歩的運動에 對한 殘惡한 暴壓이 橫行되는 現實的 條件에서 우리의 前進途上에 어저 陰路와 난관인들 없을 수 있겠는가!

敵들은 只今 民族의 自主獨立과 人民의 自由解放을 爲해 분기한 우리 愛國者들과 革命家들을 「反逆者」로 몰아 잔인하게 刑罰하며, 反美救國과 統一革命을 爲한 우리의 成業을 抹殺하기에 狂奔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임종에 이른 者들의 最後 경련에 不過하다.

校刑吏들은 우리 隊伍에서 몇몇 戰友들은 앓아 갈 수 있어도 그들이 뿌린 革命의 불씨는 決코 消滅할 수 없으며, 不遠 高潮될 革命의 怒濤를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子子孫孫 代를 이어 지켜져 왔고 愛國鬪士들의 鮮血로 물든 神聖한 祖國疆土가 「양키」놈들의 검은 軍靴 밑에 蹂躪되는 것을 決코 傍觀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기어코 殘惡無道한 侵略者들과 死國奴들을 掃蕩하고 그들에 依해 이지러진 祖國땅위에 民衆의 樂園을 建立하고 동강난 祖國을 이어 높고야 말 것이다.

우리의 革命偉業은 正戰롭고 그 勝利는 必然的이다.

韓國革命은 勇代의 卓越한 領袖 金日成同志에 依해 향도된 抗日武裝鬪爭의 榮光찬 傳統에 뿌리박고 있으며, 革命의 真理 歷史

의 燈台인 偉大한 主体思想에 依해 그 眞路가 役役히 明示돼 있다. 革命의 敵들은 極少数이고 革命의 便에는 無窮無尽한 힘을 가진 數百數千萬 大衆이 있다. 우리 人民은 內憂外患의 첩첩한 荆棘속에서도 民族의 슬기와 愛國의 氣魄을 간직해 왔고 侵略과 売國에 抗拒하여 줄기차게 승워왔다.

우리의 聖業은 全國革命의 堡壘인 以北의 不敗의 革命基地에 依해 굳게 担保되어 있고 북녘 兄弟들의 同胞愛的 支援을 받고 있다. 國際的 情勢추향도 우리革命에 利롭게 變換되고 있다. 우리 革命의 主敵 美帝國主義는 內外에서 휘몰아치는 革命的 暴風雨앞에서 戰慄하고 있다. 只今 地球上 到處에서 敢行되는 「양키」들의 侵略과 戰爭騷動은 함정에 빠진 猛獸의 狂症이다. 美帝國主義는 이미 歷史의 하강선에 合입된지 오래며, 그 앞종의 時刻은 박두하고 있다.

現時代는 國際資本의 鉄鎖가 속속 絶斷되고 社會主義가 勝利하는 世界史的 變換의 時代이며 모든 大陸의 被壓迫 民族들이 긴 철후의 暗夜를 걷어차고 反帝解放의 絶전에 歐起한 鬪爭의 時代다, 이 도도한 時代의 거류속에서 展開되는 우리 革命의 前途는 輝煌하며 그 勝利는 確定的이다. 必야흐로 革命은 成歎되고 있으며 決定的 時刻은 임박하고 있다.

학대와 주립을 박차고 自由와 解放을 爲해 분기한 이 나라 民衆의 기개는 장대하며 그것은 일로 거세찬 革命의 격랑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 崇峻한 時刻에 黨은 당신들 被壓迫 大衆들과 愛國的 人民들을 壓制者들을 激滅하는 偉大한 聖戰으로 부른다.

결국은 죽음이며 주저는 敗北이다.

모두다 反美救國과 統一革命의 偉業을 爲해 果敢히 떨쳐 나서라!

一切 愛國的 民主主義 力量은 統一革命黨의 旗幟下에 굳게 團結하라!

美帝侵略者들과 그 走狗輩들을 打倒하자!

韓國의 人民民主主義 革命만세!

金日成同志의 偉대한 主体思想만세!

## <附 錄>

### 2 . 統一革命黨 綱領

第2次大戰後 日帝를 代身하여 上陸한 美帝國主義는 우리나라에 對한 百餘年來의 侵略野慾을 充足하고 亞細亞大陸侵略의 橋頭堡를 構築할 目的下에 韓國을 軍事的으로 強占했다. 그들은 占領軍의 銃劍으로 抑壓하고 「獨立」과 「援助」의 甘言으로 愚弄하면서 새로운 植民地 統治者로 登場했다. 그간 우리 韓國社會에 어떤 變化가 있다면 다만 展示效果를 노리는 虛構的인 民族的 外皮와 民主主義의 假飾物이 添加됐을 뿐, 20世紀 以來의 植民地 奴隸의 歷史는 依然 持續되고 있다. 國土가 있고 主權在民을 高唱하는 이는 名色에 不過하고 美帝侵略者들이 政治, 經濟, 軍事 等 韓國의 一切 權力을 壟斷하는 實際的 統治者로 되고 있다. 所謂 大韓民國이란 可憎스런 植民地 支配를 粉飾하기 爲한 看板이고 그 政權은 美帝侵略軍과 援助「달러」에 依해 扶支, 操縱되는 新

植民主義의 道具이며 死國背族의 傀儡政權이다.

現 朴○○政權도 美·日帝國主義의 排泄物로 斜陽된 走狗集團으로서 上典의 指示에 忠實한 侵略과 掠奪의 下手人이다.

美帝國主義는 韓國經濟를 援助에 結縛하여 그 要衝을 掌握하고 植民主義 支配의 効率的 實現을 爲해 經濟體制를 改編했다.

各種 特惠를 通해 美國 過剩商品處理의 中介者, 独占資本浸透의 案內者, 大衆掠奪의 共謀者가 될 買辦資本家들을 育成하는 一方 詐欺的 「農地改革을 施行하여 土層封建地主 勢力을 庇護했고 이들을 植民地 統治의 社會的 地盤으로 삼았다.

이로 因하여 都市에서는 美帝 独占資本과 그것에 附隨하여 겨레의 膏血을 짜내는 한층의 新興買辦財閥이 産業經濟의 基幹部分을 支配하게 됐고 虛弱한 民族資本은 到處에서 驅逐, 破産 當하고 있다. 農村에서는 地主的 土地 所有制와 그것에 基礎한 前近代的, 經濟外的 搾取方式이 溫存되어 農業經營의 零細化와 広範한 小農經濟의 零落을 招來하고 있다.

結果 韓國經濟는 自主的 成長의 길이 閉鎖되고 無制限한 植民地 掠奪과 軍事的 附屬物로서만 所用되는 對美 一刀倒의 隸屬經濟로 軛化되고 依然 前近代的 後進性에서 脫皮치 못하고 있다.

韓國의 現 社會制度는 그 性格上 植民地的이고 半封建的이다.

오직 美帝侵略軍의 銃劍과 그 走狗輩들의 「搾取」暴壓에 依해서만 지탱되고 있는 이 腐敗한 社會制度야 말로 韓國社會發展의 痼疾的 癥이며 이 社會의 모든 병폐의 原因이다. 外來侵略勢力과 그 走狗輩들의 蹂躙下에 날을 따라 深刻化되는 經濟的 破局과 政治的 混迷, 社會的 不安과, 大衆的 窮乏, 全 社會에 猖獗하는 不正腐敗와 末世的 社會惡等 이 모든 可恐할 慘狀은 現存 社會制度의 反民族性, 反人民性을 露의 實証하고 있다. 그것은 나라의 自主的, 民主的 發展과 決코

兩立할 수 없다. 現存制度的 革命的 顛覆은 自主自立을 指向하는 民族史의 要請이고 自由解放을 熱望하는 民衆의 意志이며, 韓國社會發展의 客觀的 必然性이다.

植民地 半封建社會의 體內에서 胚胎된 韓國革命에는 反帝民族解放의 課題와 反封建民主主義의 課題가 同時에 賦課되어 있다. 이 歷史的 課題는 互相共存할 수 없는 두 勢力間의 尖銳한 鬭爭속에서만 解決될 수 있다. 現 權力構造와 經濟基盤 위에서 專橫과 富貴를 누리는 美帝侵略者들과 買辦資本家, 地主, 惡質官僚들은 社會의 革命的 變革에 必死抗拒한다. 그들은 우리 民族의 權益을 蹂躪하고 우리 社會의 民主的 發展에 逆行하는 反民族, 反民主勢力이며, 革命의 打倒對象이다.

그중 反革命의 傀儡이며, 國內反動的 斜陽者인 美帝國主義는 革命의 主對象이다. 反對로 植民地 半封建社會體制下에서 搾取와 抑壓만을 당하는 勞動者, 農民, 兵士大衆과 進歩的 青年學生, 知識人, 都市小資產階級 그리고 良心的 民族資本家들은 社會革命에 死活的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民族的, 民主的 紐帶로 結合된 社會進歩의 推進力이며, 革命의 動力을 이룬다. 이 중에서도 勞動階級은 가장 先進的이고 革命的이기 때문에 革命의 指導的 使命을 勘當할 領導階級이 된다. 韓國革命은 勞動階級の 領導下에 社會主義를 指向하는 人民民主主義 革命이며, 韓國社會의 참된 再生의 길은 곧 여기에 있다. 19世紀 西歐 資本主義가 걸어온 길은 이미 닳았다. 資本主義의 平和的 發展期가 終末을 告하고 帝國主義段階에 들어선 오늘의 歷史的 環境에서 이 길을 따라서는 植民地 後進國의 民族 民主的 課業을 終局的으로 成就

할 수 없다. 이 길은 또다시 帝國主義에 隸屬되어 絶對 多數 人民大衆을 貧窮과 虐待속에 몰아 넣고 오늘의 民族悲劇史를 反復할 뿐이다. 人民民主主義 革命만이 아니라 自主權을 確固히 担保하고 人民의 自由와 解放을 徹底히 實現하며, 民族統一의 大業을 成就하는 길이다.

8.15解放後 以北에서는 우리 民族의 太陽이시며, 不世出의 英雄이신 革命의 偉대한 首領 金日成同志의 賢明한 嚮導下에 勞動者, 農民, 知識人 等 全体民衆이 人民革命을 勝利的으로 推進하여 自主, 自立, 自衛의 富強한 獨立國家를 建設했고 주리고 虐待받던 被壓迫 人民이 모든 權利와 福利를 享有하는 民衆의 樂園을 펼쳐 놓았다. 各界各層의 愛國的, 進歩的 力量이 遂行하는 人民民主主義革命은 이 땅에서도 오랜 歲月 累積된 모든 社會的 汚物을 一掃하고 자랑찬 새 歷史의 紀元을 열어 놓을 것이다. 勞動階級을 爲始한 勤勞大衆의 前衛部隊이며 全体 韓國人民의 民族的 利益의 체현자인 統一革命黨은 바로 이와같은 革命課題를 解決함으로써 民族과 人民을 爲한 새 社會制度, 人民民主主義를 確立하고 勤勞人民大衆이 主人이 되는 榮光의 歷史를 創造함을 自己의 崇高한 使命으로 한다.

우리 黨은 저주로운 植民地 半封建的 社會制度를 顛覆하고 韓國社會의 民族的, 民主的 發展을 기하며, 國土統一의 大業을 完成코져 다음의 12個條의 綱領을 提示하고 그 實現을 爲해 果敢히 鬪爭할 것이다.

### 1. 美帝國主義 植民地統治의 撤廢와 自主的 民主政權의 樹立

一切 愛國勢力을 總集結하여 民族的 反美 救國抗爭으로 植民地



統治를 顛覆한다。 侵略軍을 驅逐하고 軍事基地를 撤廢하며, 美國主義의 軍事的 強占을 終熄시킨다。 美國의 現地 侵略機構를 粉碎하고 隸屬的 協定條約들을 無効化한다。

傀儡政權을 打倒하고 勞動者, 農民, 進步的 知識人, 都市小資產階級과 良心的 民族資本家 等 各界各層 人民의 利益을 代表하는 自主的 人民民主政權을 樹立하여 政治的 獨立을 成就한다。

2. 「팻쇼」獨裁體制의 掃蕩과 社會政治生活에서 民主主義의 實現  
中央情報部를 爲始한 情報, 警察, 司法, 檢察 等 暴虐機構를 解體하고 「國家保安法」, 「反共法」等 모든 反人民的 惡法을 廢棄하며, 愛國者들과 無辜한 人民들을 虐殺한 「팻쇼」元兇들을 処斷하고 「政治犯」들을 無條件 釋放한다。 人民保安隊를 創設하고 民主的 司法, 檢察制度를 確立하여 革命的 爭取物과 人民의 生命, 財産을 保護한다。 民主民權에 對한 一切 侵害行爲를 嚴禁하며 言論, 出版, 集會, 結社, 示威 및 信仰 等 民主主義의 自由와 權利를 實質的으로 保障한다。 先進思想의 選擧과 그 宣傳의 自由 各界各層의 權益을 代表하는 民主的 政黨團體들의 組織과 그 活動의 自由를 確固히 担保한다。 居住, 移動, 職業 選擧의 自由와 人格, 住宅의 神聖 不可侵, 書信의 秘密을 嚴格히 保障하며 少數民族 反逆者를 除外한 滿 18歲 以上の 公民에게 選擧權과 被選擧權을 賦與한다。

3. 農, 漁村의 世紀的 落後性과 貧窮의 一掃

民主的 土地改革을 突施하여 農民들을 封建的 抑壓과 榨取에서 完全히 解放한다。 「논」3町步, 「밭」5町步 以上の 地主所有 土地와 小作地는 無償沒收하고 그 以下の 小地主, 富農들의 小作地는 買上하여 土地가 없거나 적은 農民들에게 無償分與한다。 反美救國事業에 貢獻한 愛國者의 所有土地는 그 規模에 關係없이 買上한다。

山林과 灌溉水利施設을 國有化하여 農民들의 公益을 圖謀한다. 軍徵發土地를 解体하고 休戰線一帶의 農耕地를 復旧하며 西海岸 干涸地와 山間地帶土地를 大의 開發하여 貧苦층들에게 追加分與함으로 卞 農戶당 所有土地를 1.4町步 以上으로 擴張하며, 零細農民들의 土地問題를 根本的으로 解決한다. 漁民들을 前近代的 搾取에서 解放하고 漁撈活動의 自由와 漁民의 生活安定을 期한다. 零細漁民들에게 漁船, 漁具 및 漁業資金을 國家的으로 保障해 주며, 國營水産企業所를 創設하는 同時에 國家의 物質, 財政的 支援下에 資源的 原則에서 水産協同組合을 廣範히 組織하여 漁民들의 處地를 根本的으로 改善한다.

#### 4. 重要産業의 國有化와 自立的 民族經濟建設

外國独占資本家의 買辦資本所屬의 工場, 鉱山, 銀行, 商業機關 등을 沒收, 國有化하여 民族産業發展과 人民福利增進에 活用하는 同時에 外勞에 依한 經濟壟斷과 少數 特權層의 經濟独占을 排除한다.

民族資本家, 手工業者, 小商人들의 企業活動을 保護하고 그들의 創意를 獎勵하여 民族經濟建設에 寄與케 한다. 經濟構造의 植民地的 跋行性을 打破하고 確固한 自主的 民族經濟의 基礎을 構築한다. 經濟 各分野에서 美國援助의 後遺를 一掃하고 外國資本의 流入을 防止하며, 對外貿易의 國家統制를 實施하여 外勞의 經濟的 壓力으로 부터 民族經濟를 保護한다. 國內資源을 積極 開發 利用하고 自體의 原料, 資金, 技術에 立脚한 自立的 民族産業을 發展시켜 經濟의 對外依存性에서 完全 脫皮한다. 軍事費와 行政管理費를 大幅 縮小하여 生産的 投資을 增大하는

同시에 南北經濟交易를 實現하여 相互經濟協助를 強化하고 南北經濟의 均等的, 共同的 發展에 参与한다.

5. 民主的 勞動法令의 實施와 勞動者들의 社會經濟的 地位의 改善  
새로운 民主的 勞動法令을 制定하여 勞動者들의 民主的 權益을 實質的으로 保障함으로써 그들을 國家, 經濟管理에 積極 参与케 한다.

8時間 勞動制, 最低賃金制, 2~3週의 有給休暇制, 國家, 企業 所 負擔에 依한 社會保險制를 實施하여, 모든 勤勞者들에게 安定된 職業을 주어 失業者, 半失業者들을 完全히 退治한다.

前近代的 雇傭制度와 勞動條件을 一掃하고 勞動安全, 勞動保護에 万全을 期한다.

無斷解雇, 賃金滯払을 嚴禁하며, 就業의 安全性을 保障하고 有害, 危險, 時間外 勞動에 對한 特別報酬制를 實施한다.

6. 女性들의 權益保障과 社會的 地位의 向上

男女平等權法令을 制定하여 女性들을 一切 封建的 束縛에서 解放하고 그들에게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各分野에서 男性과 同等한 權利를 賦与한다. 人身売買, 公娼 및 私娼制度和 蓄妾制度를 一掃한다. 女性들의 社會的 進出을 爲한 實質的 條件을 造成한다. 母性和 幼兒를 特別히 保護하며 國營企業의 母性 勞動者들에게 6時間 勞動制를 適用하고 모든 廠業女性들에게 産前, 産後 70日 以上の 有給休暇制를 實施한다.

女性들의 社會政治活動과 勤勞條件을 保障하기 爲하여 託兒所 幼稚園과 産院을 広範히 設置한다.

7. 民主的 民族文化의 揚達과 知識人들의 生活保障

京大主義, 民族虛無主義, 腐敗한 洋風, 排擊하고 우리나라

의 悠久한 文化傳統을 繼承하여 民族主体性에 立脚한 民主的 民族文化를 發展시키며, 民族自主精神과 愛國思想을 涵養한다. 言論, 教育, 科學, 技術, 文化, 藝術分野에 從事하는 知識人들의 職業을 國家的으로 保障하며 그들의 生活을 安定시킨다.

創作, 研究條件을 改善하기 爲하여 文化, 科學研究機關들을 大幅 增設하며, 知識人들의 才能을 發揚시켜 새 社會建設에 積極 寄與케 한다. 南北文化交流를 推進하여 單一한 民族文化發展을 圖謀하며, 外國의 先進文化와 科學技術을 吸收한다.

#### 8. 教育의 刷新과 勤勞者 子女들에 對한 無料教育制, 獎學金制의 實施

崇美反共의 反動教育制를 清算하고 民主理念의 基礎위에서 教育 內容을 一新하며, 先進的 人民教育體系를 確立한다. 學園의 軍事化와 謀利化를 根絶하고 學園查察을 廢禁하며, 學園內 民主主義를 保障한다.

勤勞者들을 子女教育에 對한 負擔에서 解放하고 모든 青少年들에게 就學의 機會를 提供한다. 國家負擔에 依한 全般的 中等義務教育制를 施行하고 各種 雜賦金, 公納金制를 撤廢하는 同時에 苦學生들과 高等 및 大學生들에게 廣範圍한 國家獎學金制를 實施한다.

勞働年齡에 達한 各級學校 卒業生들에게 國家的으로 職業을 斡旋한다.

#### 9. 先進的 保健制度의 確立과 廣範圍 無料 治療制의 施行

金錢本位의 商業的 保健制度를 刷新하고 모든 住民들이 治療費 걱정없이 醫療 惠沢을 받는 人民保健制度를 確立한다.

医療費의 一部 或은 全部를 國家가 負擔하는 醫療保險制를 實施하며, 勞動者, 貧農民과 都市貧民에 對해서는 完全 無料治療制를 適用한다.

防疫, 衛生事業을 強化하여 各種 傳染病, 土疾病을 根絶하고 勤勞者들의 健康 增進을 圖謀한다. 國家醫療機關을 大幅 補充하여 모든 面, 里에 診療所를 設置한다.

#### 10. 自衛的 民族軍隊의 創設

一切 侵略的 軍事協定을 廢棄하고 軍事顧問制를 撤廢하며, 軍統帥權을 回復하여 自主國防을 實現한다. 國軍을 改編하여 愛國育壯年들로 自衛的 民族軍隊를 創設한다. 相兩과 民族을 背反한 極少數 惡質上層 將校들을 嚴罰하고 反美救國事業에 參加할 將校는 重用한다.

強制徵集制度, 鄉土予備軍制度, 學徒軍事訓練制度를 撤廢하고 自願兵制를 實施하며, 軍事制度를 改革한다. 士兵들을 軍事管理에 積極 參與케 하고, 그들의 人權을 保障하며 士兵의 奴隸化와 氣合을 包含한 一切 人身 侮辱을 嚴禁하고 營長制度를 廢止함으로써 軍隊內 民主主義와 官兵一致의 氣風을 確立한다.

士兵들의 処遇를 改善하여 그 家族들의 安定된 生活을 國家的으로 責任지며, 隊隊軍人들의 職業과 生活을 保障한다.

軍隊의 質的 向上을 圖謀하여 兵力을 20萬 以下로 減軍하고 人民들의 軍事費 負擔을 大幅 輕減한다.

#### 11. 自主外交의 具現과 反帝平和愛好 國家들과의 友好增進

專六亡國的, 外勢依存的 屈辱外交를 止揚하고 民族主体 理念에 透徹한 自主的 外交政策을 實施하며 平等, 互惠 不干涉

의 原則에서 民主友好國家들과의 親善을 圖謀한다。 美帝國主義의 侵略政策과 日本軍國主義의 再生을 反對하고 世界 被壓迫民族들의 解放鬭爭을 積極 聲援한다。 帝國主義, 植民主義를 反對하는 모든나라 人民들과 反帝反美 共同紐帶를 強化하고 極東과 世界平和에 積極 寄與하며 나라의 國威를 萬邦에 宣揚한다。 美帝國主義者들이 強占 全期間을 通하여 우리 人民에게 끼친 一切 人的, 物的 被害에 對한 賠償 請求權을 行使한다。 「韓·日條約」을 白紙化하고 過去 植民地 統治期間 日帝가 犯한 罪惡에 對한 血債를 完全히 清算한 基礎위에서 對日關係를 全面 再調整한다。

## 12.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의 成就

反共統一, U N 監視下의 統一을 排除하고 一切 外勢의 干涉없이 南北人民들의 自律的 民主意思와 民族主体力量에 依拠한 平和的 祖國統一을 實現한다。

南北對立과 同族相殘을 鼓吹하는 民族分裂主義를 排擊하고 緊張狀態를 緩和하며, 民族融合을 爲한 平和氣運을 助長하고 各方向으로 對話의 길을 開拓한다。

相互接觸과 面談, 人士來往, 移住의 自由와 文物의 交流를 實現하며, 民族的 平和統一 運動을 展開한다。 革命이 勝利하고 自主的 人民政權이 樹立되면 遲滯없이 南北協商을 進行하여 雙方의 合意下에 戰爭狀態 終熄과 休戰線 撤廢에 關한 平和宣言을 公布한다。 南北에서 다 같이 政治活動의 自由를 保障하는 基礎위에서 雙方政府의 共同管理下에 全國總選舉를 實施하여, 統一의 中央 政府를 樹立함으로써 民族至上의 課題인 祖國統一

作業을 達成한다.

統一革命黨 中央委員會

1969 年 8 月

서 울

